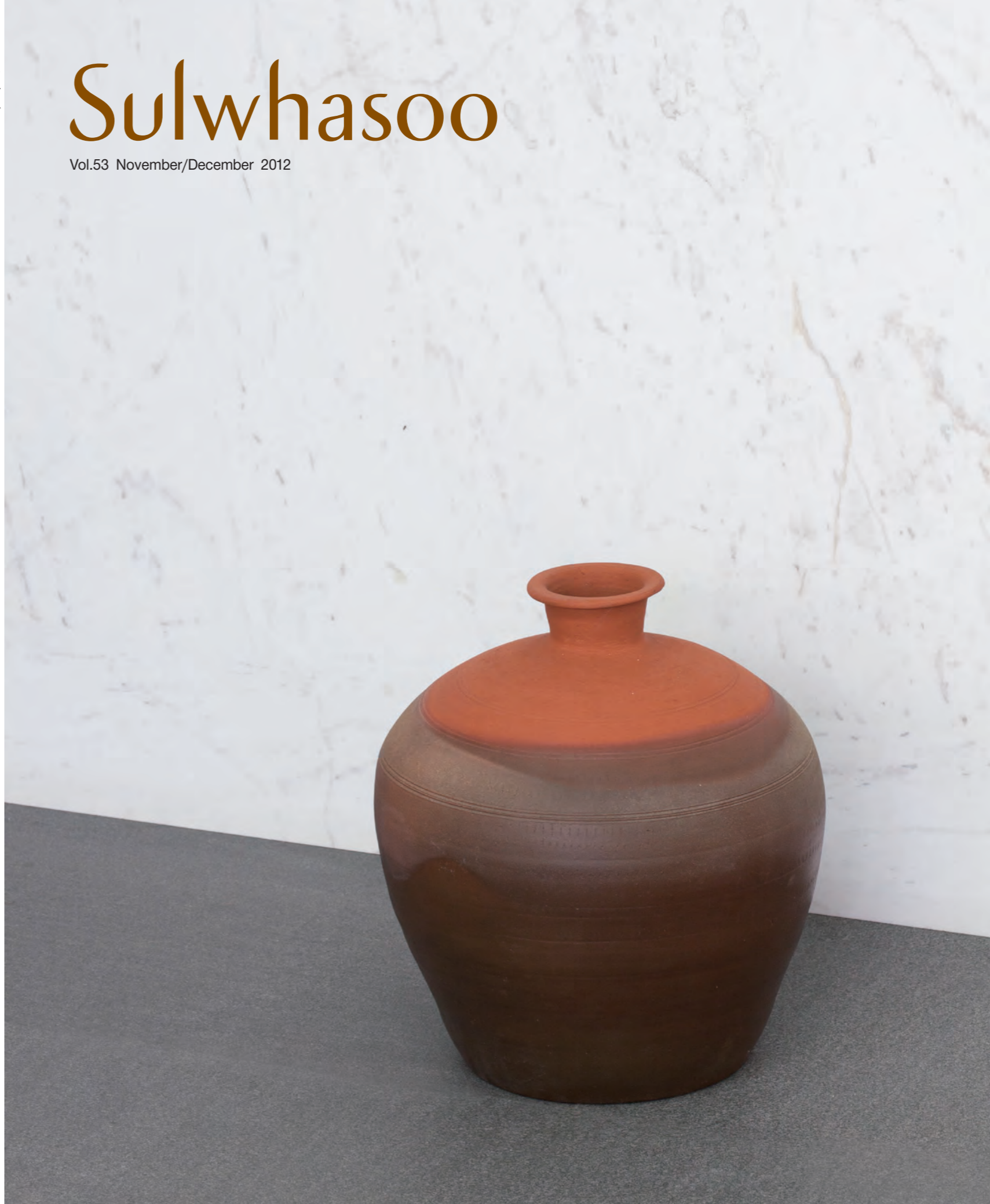




Sulwhasoo

Sulwhasoo

Vol.53 November/December 2012



Vol.53 November/December 2012



雪花

雪花秀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의 기본은 속부터 단단히 여민 피부입니다 설화수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가 느슨해지면 피부 빛, 피부 결, 피부선 모두 무너집니다.
문제의 근본인 피부 밀도를 개선하여
흐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까지 한 번에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피부를 단단히 여미는 순간,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은 시작됩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담, 여민에센스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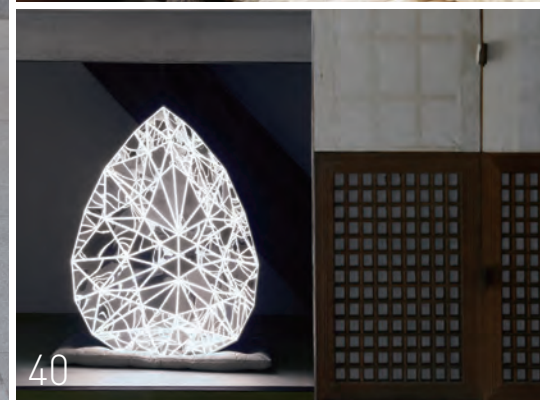
자연에서 태어난 그릇, 옹기

Earthenware, vessels that are not widely known because of Goryeo Celadon, Inlaid Porcelain, and White Porcelain, is actually most closely connected to the lives of Korean ancestors. The dark red color of lacquer, similar to that of yellow earth, its leisurely smooth curve, and its naturally rough texture resemble the nature-friendly lifestyles of Korean ancestors. It has invisible pores on the surface to supply fresh oxygen to the inside, so it was like the treasure chest of ancient Korean cuisine, in which many foods were salted and fermented for storage.

The traditional earthenware was born of an arduous journey, similar to that for other kinds of porcelain. Earthenware is made solely with soil and fire, so it is a precious heritage that is a testament to the lives and spirits of those who make and use it.

고려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에 밀려 조명을 받지 못한 그릇 옹기는 알고 보면 선조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김붉은 황토빛을 닮은 듯한 유색, 풍만한 곡선미와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형태, 투박함이 살아 있는 거친 질감 등 자연친화적인 우리 선조들의 일상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 신선한 산소를 내부로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숨구멍이 있어 발효 음식이 대부분이었던 우리 식탁의 보물창고였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한 옹기는 다른 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호된 고행길을 거쳐야만 태어나는 그릇이다. 오로지 흙과 불에 의지해 완성되는 옹기의 탄생 과정은 그래서 만들고 사용하는 이의 삶과 정신이 담긴 위대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S

에디터 유수아



다시 보는 우리 유물	향을 살라 부처를 공양하다, 청곡사 향완	06
집 안 단장	여성의 존재적 유희, 부익	08
몸단장	주는 기쁨, 받는 행복	10
한국 문화 읽기	배갯모	12
피부 섬기기	겨울에도 피부에 윤기를 머금다	14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피아니스트 손열음	18
격조 높은 삶	조선 시대를 디자인한 여성들	24
시대를 열다	주체적인 삶으로 시대를 디자인한 여성들	26
어우러지다	규방유행문화	30
세계 디자인 호텔	대서양 횡단의 모험담, 호텔 뉴욕	34
아트 클래스	궁궐의 역사와 눈물, 아스라이 기억되고 아름답게 추억되다	40
전통과 현대의 조우	설화문화전	47
설화문화전 장인을 만나다	10인의 손끝에서 옹기의 진면목을 발견하다	58
설화문화전	2012 설화문화전 '흙, 숨쉬다, 옹기'	64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명신(名臣)의 근심 풀이 준 서울 도심의 비밀 정원	66
명사들의 그릇장	장응복, 그녀의 그릇장 앞에 서서	72
국악 기행	오직 한 장소에서만 연주 가능한 세계 문화유산, 종묘제례악	74
설화도감	피고 지고, 다시 피는 생명력, 야생초	80
설록다원	벚과 함께하는 마음의 공간, 겨울 찾자리	84
설화수 스파	자연의 기운이 깃들다	86
문화 즐기기	삶의 희망과 꿈을 노래하다, 뮤지컬 <맨오브러만차>	88
마음 단장		90
설화수 뉴스		92
전통공예 배우기		93
Insidi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Sulwhasoo

November/December 2012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약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은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 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에스려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2012 November/December Issue features the artworks from the 2012 Sulwha Cultural Exhibition 'Onggi : Respiring Earth'. Traditional earthenware, the product of soil and fire, is molded into various artworks with modern aesthetics and offers new visual aesthetics that harmonize tradition with modernity.

2012년 11/12월호 설화수 매거진 표지는 2012년 설화문화전 '흙, 숨쉬다, 옹기'의 작품들과 함께한다. 흙과 불이 빛어내는 산물인 옹기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릇이다. 이러한 다양한 옹기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가 융화되어 탄생한 새로운 시각의 미감을 제시할 것이다. 에디터 유수아 작가 김창길표지, 배연식(뒷표지)

●발행인·서경배 ●편집인·권영소 ●발행처·(주)이모레퍼시픽·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81번지 ●제작·MC 전략팀 ●문의·최상구 02)709-5401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인나랑, 문비송 디자인·조윤형 마케팅·윤여한 ●발행일·2012년 11월 1일(통권 제53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 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사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청곡사 향완, 조선 1397년, 청동, 높이 3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향을 살라 부처를 공양하다 청곡사 향완

사람이 가진 오감 중 후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향이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실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방향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향부터 인공적으로 만든 향까지 늘 후각을 자극하는 향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된 향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때는 삼국 시대로 추정된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전래되면서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눌지왕 때 중국 양나라에서 보낸 향의 이름과 용도를 고구려에서 온 승려 목호자가 알려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향을 태우면 그 정성이 삼보(三寶)에까지 이르므로, 이를 태우고 축원하면 영험이 있다고 했다. 눌지왕은 양나라 때 왕이 아니므로 기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불교에서 향이 중요한 공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가 시작된 인도에서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아 생기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연기를 피웠다. 여기에서 시작된 향 공양은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하는 의미를 담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에게 향을 공양하는 것이다. 물론 부처에게는 향뿐만 아니라 꽃, 물, 음식 등을 바쳤으며, 이러한 공양품을 담기 위해 꽃바구니, 화병, 촛대 등의 공양구(供養具)가 필요했다.

향을 피울 때도 그냥 피우는 것이 아니라 향로라는 공양구가 있어야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은 불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지만,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향로 중에는 어딘가에 걸 수 있는 현향로(懸香爐)나 자루가 달려 있어 손에 짚 수 있는 손잡이 향로도 있다. 특히 손잡이 향로는 들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향로를 대표하는 것으로 꼽을 수 있는 형식은 바로 향완이다.

향완은 높은 기대(器臺·반침대) 위에 깊은 발(鉢)처럼 생긴 노신(爐身·몸체)을 올려놓은 모양의 향로이며, 특히 이러한 모양의 향로를 고려시대에 ‘향완’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는 명문이 새겨진 예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전하는 향완 중 가장 오래된 표충사 향완은 고려 시대인 1177년에 만들어졌다. 이 향완에는 ‘청동함은향완(靑銅含銀香壇)’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즉 12세기 초에 이미 이런 형식의 향로

를 향완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향완에 어떠한 향을 사용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 흥미롭다.

1123년 중국 송의 휘종이 고려에 보낸 사절단 중 한 명이었던 서공이 체류 기간 동안 고려의 건축, 의식, 풍속 등을 살펴본 후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은 고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헌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고려 조정에서는 회합이 있을 때 사향, 용뇌, 전단, 침향 등을 피웠다고 한다. 사찰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향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고려 시대의 향완 형식을 따르고 있는 청곡사 향완은 1397년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곡사가 위치한 경상남도 진주는 신덕왕후 강씨의 고향이다. 이런 인연으로 청곡사는 조선 왕비의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이 된 것이다. 몸체 윗부분을 테두리처럼 두른 전의 밑면에 새긴 명문에 따르면 비구 상충, 가락부원군 김사행, 찬성사 김진이 향로를 만들어 비보선찰인 청곡사 보광전에 바쳤다고 한다. 신덕왕후는 139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왕후를 위해 향로를 공양했음을 알 수 있다.

청곡사 향완의 표면은 얇은 은선을 끼워 넣은 입사 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입사 기법은 고려 시대 때 청동으로 만든 정병, 향완, 함, 대야 등을 장식했던 대표적인 금속공예 기법이다. 어두운 바탕색과 하얗게 반짝이는 은색의 대비는 장식된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드높였을 것이다. 특히 입사를 했던 김신강이란 장인의 이름까지 명문에 남아 있어 공예사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몸체의 아랫부분을 두 겹의 연꽃잎으로 두른 다음, 그 위의 넓은 면을 연꽃넙쿨무늬로 빼곡히 장식하고 있다. 몸체의 중심에는 두 줄의 동심원을 여섯 개 만들어 그 안에 범(梵)자 한 자씩을 무늬처럼 넣었다. 또한 범자를 둘러싼 원 주위는 여의두무늬를 돌렸다. 전의 윗면에는 몸체의 장식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간결한 연꽃넙쿨무늬를 장식하였다. 긴 반침대에는 아래부터 위로 연꽃잎무늬, 여의두무늬, 번개무늬 등이 표현되었다. 나팔처럼 퍼진 부분에도 번개무늬와 연꽃넙쿨무늬가 은입사되어 있다. 이처럼 청곡사 향완은 표면 전체에 다양한 무늬를 유려하게 장식한 조선 초기의 뛰어난 공예품이다. S

글 채해정(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여성의 존재적 유희, 부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엌은 내 손으로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리는 신성한 공간이자, 주부의 살뜰한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는 가치에 비해 부엌을 지배하는 무드는 분주함에 힘을 잃고 말거나 복잡한 도구들로 정신 없기 일쑤다. 의상엔 저마다의 취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 존재적 유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할 부엌은 협소함, 위생적인 이유로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 실용적이며 감각적인 살림도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변화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대적 느낌의 소반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방석과 매치해 차를 대접하기에 그만일 뿐 아니라 평소엔 그릇장 위 한 권을 멋지게 장식하는 소품이 된다. 그뿐인가. 도구들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천편일률적인 모양이 아닌 자연을 모티프로 한 제품들은 그것 자체로 또 하나의 작품이 되며 요리에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기 회화적 감성이 깃든 감각 있는 소품들을 소개한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혜희, 김이영 도움 주신 곳 반길(02-730-6968), 빈컬렉션(02-735-5760), 시선(02-766-8888), 자연공간도(02-762-5431), 정소영의 식기점(02-541-6480), 종이나무갤러리(02-766-3397), 카레(02-545-9872), 티더블유엘(070-4223-015), 행복한 바느질(02-730-6928)



1 위에서부터 분청 접시, 청자 먼기, 분청함, 검정함, 백자 먼기, 흑자 먼기, 소반은 모두 정소영의 식기점. 수공예로 제작된 나무 수저, 계량 수저는 모두 티더블유. 2 한 손에 들기 좋은 소박한 나무 도사락과 보자기는 행복한 바느질. 3 꽃문양을 응용한 세라믹 냄비 받침은 시선. 4 테이블 세팅을 돋보이게 할 주얼리 냅킨 링은 카레. 5 단단한 호두를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모던한 호두까기는 티더블유. 6 자연스러운 나무의 멋이 느껴지는 수저, 나이프 등의 커트러리 세트는 티더블유. 7 고운 꽃이 그려진 화병 모티프의 조명은 자연공간도. 8 화병 위에 앉아 있는 구름은 조명이 된다. 구름 꽃 조명은 김정숙 작품으로 종이나무갤러리. 9 매화문이 감각적인 앞치마는 시선. 10 박달나무에 채화칠을 한 포크 세트는 박경옥 작품으로 빈컬렉션. 11 한 쌍의 양중맞은 새가 부엌 한 권에 앉아 있는 상상력이 빛어낸 소금, 후추통은 카레. 12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케이크 접시는 양병용 작품으로 반길. 천연 오일로 마감한 계란컵은 티더블유. 13 가지 무경을 열면 이쑤시개가 담겨 있다. 채화칠을 한 정감 있는 이쑤시개 통은 빈컬렉션. 14 고양이를 모티프로 작업하는 신수영 작가의 작품으로 고양이가 즐겨 가지고 노는 털실을 미니어처로 만든 냉장고 자석은 자연공간도.

주는 기쁨, 받는 행복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거리 곳곳엔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노래와 장식들로 가득하다. 인생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운명을 따라 함께 오는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이야기, 복 중에서도 인복이 제일이라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돌이켜 보니 정말 한 해를 잘 보낸 것도,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는 것 또한 사람을 통해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마웠던 가족, 연인, 지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보자.

초대받은 연말 모임에 고운 비단으로 장식된 와인 커버에 향이 좋은 와인을 포장하거나 전통 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귀한 펜, 아름다운 브로치를 준비해 가면 어떨까. 자개 장식으로 마감한 핸드폰 케이스나 선조들 특유의 유쾌함이 묻어나는 민화를 재해석한 다이어리 등 현대적인 제품도 눈여겨보자. 감각적이고도 독창적인 전통 문양의 선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두근두근 기억에 남을 만한 아이템을 모아 보았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닌(070-4114-7775), 뮤제아시아(02-557-9286), 박혜리 공방(02-542-4692), 비아케이스튜디오(02-540-7453), 빈컬렉션(02-735-5760),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02-3210-0071), 시선(02-766-8688), 이브자리코디션(02-548-7468), 휴블라썸(02-6348-8356)



1 술방을 리스와 연법에 색동 장식을 한 오브제는 행복한 비느질 미니 화병 오브제, LED 촛대는 흥현주 작품으로 뮤제아시아.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오너먼트는 목공예가 양병용과 서울시 무형문화재 채화칠가장 김환경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 뮤제아시아. 2 고급스러운 비단 슬리퍼는 박혜리 공방. 3 부모님의 편안한 낮잠을 도울 화중 문양이 그려진 극세사 목베개는 시선. 4 모란도를 모티프로 한 텀블러는 그랑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5 나이가 들어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좋은 돋보기는 김미경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6 가족, 연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비단 앨범은 뮤제아시아. 7 알록달록 전통 미감이 살아 있는 열쇠고리는 비아케이스튜디오. 8 전통 문양의 스틸 장식에 뱀피 가죽을 붙여 만든 고급스러운 브로치는 이미영 작품으로 닌. 9 화려자 모양의 향긋한 비누는 표미경 작품으로 휴블라썸. 10 매화문과 조각보 문양이 그려진 자개 핸드폰 케이스는 시선. 11 저녁 식사 초대에 선물하기 좋은 와인도 색다른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든 와인 커버는 박혜리 공방. 12 한복 입을 남녀가 장식된 촛대는 흥현주 작품으로 뮤제아시아. 13 여행을 좋아하는 딸을 위한 센스 넘치는 선물 100퍼센트 실크 수면 안대는 이브자리코디션. 14 은은하게 비치는 노방의 소재를 살린 고급스러운 책갈피는 독서광 큰이들을 위한 선물로 제격 박혜리 공방. 15 전통 민화를 워트 있게 재해석한 노트는 시스컴 작품으로 서울아트센터 공평아트샵. 16 대나무 뿌리의 기하학적인 모양이 기품 있는 펜은 뮤제아시아.

베갯모 Begaenmo

아름다운 수침에 깃든 꿈과 행복



반듯하게 누웠을 때 목을 받치도록 고안해 뒷목의 근육을 쉬게 하고 목뼈가 C자형 곡선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목베개가 장소를 불문하고 인기다. 자동차, 도서관, 심지어 회사의 사무실까지, 어디든 짧은 단잠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장

소 불문'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목베개를 목에 건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럽다. 잠은 집에서 자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한다. 하얀 천으로 감싸고 정성스레 바느질한 우리 전통 베개에는 정교하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다. 한국의 옛 여인들은 꿈이 베개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꿈을 만들어 내고 가꾸기 위해 정성을 들여 베갯모에 수를 놓았다. 베갯모란 베개의 형태를 잡아 주거나 장식하는 용도로 베개의 양쪽 끝에 대는 것으로, <고려도경>에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고 그 속에 마른 향초를 채우고서 양쪽 마구리에 실로 수를 놓았는데, 무늬가 참으로 정교하고, 붉은 감으로 장식한 것이 연꽃잎과 같다."는 기록이 있다. 베갯모는 재질에 따라 나전침, 화각침, 상아침 등으로 나누고, 문양에 따라 원앙침, 구봉침(九鳳枕), 수복침(壽福枕), 십장생침 등으로 불렀다. 특히 베갯모에 수를 놓아 베개 양 끝을 잡아준 마구리로 삼은 수침(繡枕)은 왕실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였으니, 잠을 자는 동안에는 임금과 평민이 다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베갯모의 수에는 외톨이가 없다. 빨강고 동그런 해와 달이 함께 뜨고, 꾸불꾸불 구부러진 소나무는 거북이와 어우러져 향기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두루미와 한 식구가 된다. 모두가 한 쌍이다. 작은 베갯모 속에 인생의 행복과 가족, 그리고 우주가 응축된 꿈이 숨어 있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태준 도움 주신 곳 금단체(02-517-7243) 참고 문헌 <우리문화 박물관>이아령, 디자인하우스



Neck pillows are very popular these days because they are designed to support your neck when you lie down to rest your neck muscles, and they keep your neck bone C-shaped. They are very helpful for those who take short naps in a car, in

the library, or in the office. It is funny, however, to see people napping with a neck pillow around their necks anytime and anywhere. It reminds me of my grandparents' advice to sleep only at home. Traditional Korean pillows are covered with a white cloth, sewn carefully, and embroidered with elaborate and beautiful images. In the past, Korean women believed that pillows bring dreams. They devoted themselves to embroidering Begaenmo(Pillowcases) that will beautify their dreams. Begaenmo keep pillows in shape or decorate them. In <Goryeodogyong>, there is a record that says: "A case was made with white linen and it was filled with dried scented candles and embroidered on both ends. The patterns are truly elaborate and the decoration with red fabric makes the case look like a lotus flower." Begaenmo were classified into Najeonchim, Sangachim, based on the type of material used; and into Wonangchim, Shipjangsaengchip, based on the type of pattern. Suchim, an embroidered Begaenmo, was widely used by commoners all the way to the royal family. People were equal when they were asleep. Also, Begaenmo were never alone. They were always made in pairs. Even small Begaenmo reflected people's dreams of happiness, family harmony, and universal peace.



겨울에도 피부에 윤기를 머금다

인삼의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인삼의 기운을 응축한 설화수 자음생크림 그리고 극소량만 채취할 수밖에 없는 인삼 종자유가 함유된 자음생 진본유는 설화수의 정성을 담아낸 제품이다.

왼쪽 설화수 자음생 진본유는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고 주름을 개선해 주는 한방 에센스 오일이다. 우병은 정소영의 식기장, 누빔 매트는 행복한 비누질, 비단 조각보는 박혜리 공방.

화용월태(花容月態), 꽃 같은 얼굴과 보름달처럼 우아한 자태를 말한다. 아름다운 여인의 고운 얼굴과 몸가짐을 이르는 말은 예로부터 여성들에게 최고의 칭찬이었다. 어느 자리에서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자 했던 여성들. 우리 옛 여인들 역시 화용월태의 꿈을 위해 스스로를 기꾸어 왔다. 박가분을 물에 곱게 개어 피부를 희게 하고, 꿀이나 기름에 홍화를 으깨어 섞은 연지로 생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겨를 곱게 뿜아서 비누로 쓰거나 단오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아 향내를 내었다. 또한 동백, 아주까리, 수수 열매로 백분과 머리기름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여인의 깊은 정성과 살아 있는 자연이 만나 얼굴에 아름다움을 그려낸 것이다.

몸가짐 역시 항상 단아하고 정갈한 매무새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매화꽃 엷은 비녀를 단정히 머리에 꽂고, 가슴춤에는 산호빛 고운 노리개를 달아 조화로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듯 옛 여인들이 품은 아름다움에 대한 연정은 지성스럽고 기품이 있었다. 이러한 여인들의 성심, 즉 화용월태의 꿈을 피부에 전하는 제품이 바로 설화수 자음생 진본유와 자음생크림이다.

피부에 탁월한 자생 효과를 부여해 주는 자음생크림은 인삼의 열매인 진생베리, 땅의 기운이 응축된 인삼 뿌리, 그리고 인삼수가 담긴 한방 영양 크림이다. 4년근 이상의 원숙한 인삼에만 열리는 열매인 진생베리의 성분은 하늘의 기운을 응축했으며, 엄격한 공정을 통해 인삼 성분을 제품에 농축시키는 획기적인 신기술은 피부를 되살아나게 하는 땅의 기운을 담아냈다. 또한 전통 추출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달여 낸 인삼수를 베이스로 하는 물의 기운은 인삼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인삼의 총체적인 활용을 통해 뛰어난 자생 효과를 부여한다. 풍부한 인삼의 향과 질감은 피부에 잘 스미어 촉촉함을 선사할 것이다. 아침저녁 크림 단계에서 피뒀결을 따라 펴 발라 주면 충분한 영양이 퍼지는 듯한 기운을 경험할 수 있다.

A Hwayongwoltae (花容月態) refers to a flower-like face as elegant as a full moon. The best compliment for women has always been that for their fine faces and neatness. Women everywhere have always hoped to be beautiful on any occasion. Korean women have also refined themselves to realize their dream of having a Hwayongwoltae. They dissolved Bakgabun(powder) in water to brighten their skin tone and made blushers by mixing crushed safflower with honey or oil. They finely ground rice bran for use as soap and washed their hair with iris every year to make it fragrant. They also made white powder and hair oil with camellia, castor beans, and corni fruits. The wholehearted devotion of women and nature has made women's faces beautiful.

Korean women also made efforts to stay neat and refined at all times. They dressed up their hair with a hairpin with Prunusmume flower ornaments and harmonized it with beautiful coral Norigae on their chest. The traditional women's admiration for beauty was all about devotion and dignity. Today,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re the products that realize women's dream of having a Hwayongwolta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is an excellent herbal nourishing regeneration cream that contains ginseng berries, ginseng roots that provide condensed energy from soil, and ginseng water. Ginseng berries from four-year-old or older and more mature ginseng condense energy from the air, and a new and innovative strict processing technology that extracts ginseng concentrates captures energy from soil to restore your skin's youthfulness from deep inside. Also, energy from carefully brewed traditional ginseng water achieves the ultimate regeneration effect by concentrating the entire ginseng, from the roots to the fruit. The rich scent and texture of ginseng will penetrate every layer of your skin to make it truly supple. Sprea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over your skin every morning and evening, and you will

겨울철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인삼의 응축된
기운을 전해 줄 설화수 자음생크림, 진생베리, 인삼
뿌리, 그리고 인삼수가 담긴 한방 영양 크림이다. 누
빔 매트와 비단 끈은 박혜리 공방 소장품.



겨울철 극도로 건조해진 푸석푸석한 피부가 고민이라면 자음생크림
과 함께 자음생 진본유를 사용해 보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자음생 진본유는 피부의 방어력을 높이고 각질 구조를 개선해 줄 뿐
만 아니라, 주름과 윤기를 개선해 주는 한방 에센스 오일로, 인삼씨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유해 환경에 대응력이 강한 피부로 바꾸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인삼 종자유는 1년에 단 한 번 극소량만을 채취할 수
있기에 더욱 귀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오일의 특성상 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쑥과 솔의 한국적인 향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부여하는 라벤더, 로즈메리, 유칼립투스, 오렌지
그리고 레몬 향은 추위에 거칠어진 피부와 지친 심신에 활력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겨울에는 자음생크림과 진본유의 활용도가 높다. 입 주위의 나
이 들어 보이는 팔자 주름이나 입가 주름, 지친 피부를 위한 셀프 마사
지 등은 작은 정성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미용법으로 추천할 만하다.
자음생 진본유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 자음생크림 전 단계에서 사용
하지만, 메이크업 제품과 더불어 응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메이크
업을 한 얼굴 위에 얇게 도포하고 살짝 감싸주면 하루 종일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톤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파운데이션에 자음생 진본
유를 섞어서 퍼프나 브러시로 꼼꼼하게 펴 바르면 각질이 일어나지 않
고 윤기가 흐르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저녁에는 자음생크림에 진본
유를 섞어 마사지하듯 발라 주면 팩과 같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겨울은 피부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계절이다. 조금만 손질을
게을리하면 피부 안팎으로 균형을 잃어 거칠어지고, 각질과 유수분 부
족으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부는 정성을 쏟은 만큼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잔주름이나 건조로 인한 노화 방지는 여인
의 세심한 손길과 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S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박혜리 공방(02-542-4692), 행복한 비누집(02-730-6928)

experience the energy of ample nutrition. If you are concerned about
rough skin because of the extremely dry air in winter,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is another good option to use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It is a herbal essential oil
that not only enhances the skin's defense system and improves its
structure, but also corrects wrinkles and makes the skin radiant. The
saponin in ginseng seeds leaves the skin strong against aggressors.
As an extremely small amount of ginseng seed oil is generated for
collection once a year, this product is very valuable. Fragrance i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oil. The scents of lavender, rosemary, eu-
calyptus, orange, and lemon that give stability to the Korean scents of
mugwort and pine trees give vitality to rough skin and a tired body
and mind.

In winter,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nd Concen-
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can be used in various ways.
The self-massage therapy for the nasolabial folds, lip wrinkles, and
tired skin is recommended for everyday skincare that you can do by
yourself.

In the morning, gently massag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into your skin after applying a sunscreen on it. The oil
will keep your skin supple and radiant throughout the dry winter.
When putting on make-up, mix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with foundation and spread the mixture evenly with
a puff or a brush. Your skin will glow without any dead skin cells.
In the evening, mix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with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nd massage the
mixture over your face like a pack.

In winter, you have to be extra careful with your skin. If you don't
care for it right, it will lose its balance and will become rough, and its
lack of oil and moisture will accelerate its aging. Your skin appears
more refined the more you take care of it. Keep in mind that fine
lines and dryness need the delicate touch and devotion of women.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피아니스트 손열음
음악은, 내 인생의 달콤한 열매

피아노를 칠수록 손에 잡힐 듯했던 무엇인가는 퐁퐁 숨어 버렸다. 음악은 십사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런데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이러한 음악과의 숨바꼭질이 더 흥미롭다. 자신의 삶을 자양분 삼아 음악적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즐겁다고 얘기한다.



원주 고향집 한 칸에는 어머니가 대학교 시절에 구입했던 오래된 피아노가 있다. 다섯 살의 그녀에게 피아노는 악기가 아니라 신기한 장난감에 가까웠다. 수많은 막대기가 늘어서 있는 건반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서로 다른 음을 토해 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피아노는 '꼬마' 손열음의 재미있는 장난감이, 다시 음악적 친구가 되었다. 감성적 원천에는 고향 원주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녀가 중학교 때까지 머물렀던 원주는 고향 사람을 만나 두세 마디 나누면 어느새 서로 맞장구를 칠 정도로 정겹고 익숙한 곳이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공간은 중학교 교정이다. 봄이면 학교로 향하는 길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마치 시골길을 걷는 듯했다.

“서울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크잖아요. 꽃이 언제 어떻게 피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전 시골 같은 동네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기를 보내면서 감성을 키워요. 행운이었죠. 보통 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는데 전 오히려 반대예요. 마지막에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원주랍니다.”

손열음의 성장기는 참으로 화려했다. '음악영재'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을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997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 최연소로 2위 입상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금호영재콘서트에 첫 주자로 발탁된 것을 비롯해, 각종 국제 콩쿠르를 휩쓸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렸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 입학해 김대진 교수에게 사사한 그녀는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 사이 뉴욕필하모닉의 아시아 투어에 협연하기도 했고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멤버로도 활동했다. 수많은 국제적인 콩쿠르와 무대를 이어 가면서 꼬마 영재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 커다란 날개를 화려하게 펴고 날기 시작한 것이다.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나름의 자신감도 생겼다. 가령 삶의 온갖 기준을 피아노에 맞추고 조금의 선이라도 벗어날까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연애, 친구, 여행 등 포기하는 것 없이 자신의 삶을 오롯이 즐긴다. 삶의 구석구석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변은 꽤나 명쾌하다.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술의 자양분이거든요. 가령 사람을 만나서 온갖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요.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상관없어요. 서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음악적 자양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삶의 모든 순간이 음악적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매순간을 제대로 즐겨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그녀가 피아노를 대하는 방식은 자유롭고 불규칙하다. 매일같이 자신을 옥죄듯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지 않는다. 뻑뻑한 연습 스케줄에 자신을 억지로 꿰어 맞추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제 자신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연주가 없으면 2주 정도 아예 피아노를 치지 않기도 해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억지로 연습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감정도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감정을 무시하고 피아노를 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듯해요. 대신 한번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7~8시간은 내리 몰입하죠.”

피아노는 자신을 표현하는 악기일 뿐, 더 중요한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작곡가에 대한 그녀만의 해석이다. 손열음이 작곡가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악보를 통해서다. 악보는 작곡가가 남겨 놓은 유일한 보물이자 그들이 후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악보에 가장 많은 음악적 이해·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악보를 잘 들여다보지만 해도 작곡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지 않고 그냥 악보만 볼 때가 많아요.”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그녀를 즐겁게 만드는 행복의 묘약이다.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한 삶의 순간에도 음악적 감탄사는 절로 터져 나왔다. 한번은 아침부터 침대에 누워서 음악에 빠지기도 했다. 그렇게 천국에서의 산책은 태양이 한낮의 열기를 내려놓는 저녁까지 계속 이어졌다. 머릿속에는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이었다.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를 했을 때도 그러했다. 마지막 주자였던 그녀는 매의 시선을 가진 수많은 관객을 상대로 무대에 올랐다. 순위가 매겨지는 대회의 특성상, 세계적인 콩쿠르는 음악인에게 긴장되는 무대이지 즐거운 무대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주하는 순간 손열음은 자신이 무대를 즐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피아노를 치면서 이 무대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노라고 생각했다. 스스로도 신기한 경험이 었다.

“2009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마치고 미국에서 순회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공연을 하면서 생각했죠. 큰 무대에서 간간한 청중 앞에서 연주로써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던 무대였던 거죠. 세계적인 거장들이 거쳐 간 무대여서 감회도 남달랐고 연주에 대한 나뉠의 자신감도 있었어요.”

물론 음악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만으로 살아가기엔 연주자의 길이 힘들 수도 있다. 실력과 경력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며 교육자로 나서지 않으면 안정적인 삶도 보장받을 수 없다. 계속 연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소 전투적인 삶을 이어 가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어쩌랴.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100% 피아니스트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재미있지만 스스로 피아노를 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군요. 전 그냥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이고 싶어요. 건반을 누르는 일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고백하자면 어렸을 때는 조금만 더 음악을 하면 손에 무엇인가가 잡힐 듯했다. 하지만 ‘그’ 손에 잡힐 듯했던 음악적 해답은 연주를 하면 할수록 신기루처럼 다시 멀어졌다. 자꾸 뒷걸음치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해답을 내주지 않는 음악에 더 끌린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른 분야는 노하우가 생기면 좀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음악은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깊이 빠져들수록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공부할 부분이 눈에 보인답니다. 그래서 음악은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재미있어요.”

손열음은 누구보다 색깔이 분명하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안다. 무엇보다 음악 자체를 즐길 줄 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게다. 그녀는 말한다. 누구든 음악을 한다는 것은 재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누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느냐의 여부라고.

다행히 그녀는 지금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꼬마 손열음이 커다란 날개를 펴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듯, 세상에 대한 다양한 호기심을 자양분 삼아 자신만의 음악을 구축해 왔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열음만의 음악적 ‘열매를 맺어 가는’ 중이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 고은영(위드 02-515-2322) 메이크업 전미영(위드 02-515-2322)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주신 곳 이상봉(02-553-3380) 오브제(02-3443-1730) 제시뉴욕(02-3442-0220) 제이미엔벨(070-8247-7834)



붓은 모두 유필무 작가 작품으로 캘리 존, 실패와 굴무는 규방도감 소장품, 자수는 장혜경 작품으로 행복한 바느질, 베실과 바느질 도구는 당초 문 김인자한복 소장품, 낙관은 캘리 존, 연적은 김익영 작품으로 우임요, 누빔 저고리는 김영진 차이.



조선 시대를 디자인한 여성들

조선 시대의 여성들은 외부 활동이 장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생활에도 제약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란 자생력과 창조력을 지니고 있기에 당시의 여성들에게도 그 나름의 문화적인 트렌드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여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끌었던 시대적인 흐름은 여성끼리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정치, 경제, 예술 문화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냈던 지식인들. 그중에서도 여성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여성상을 이루어 낸 주인공들을 소개한다.

주체적인 삶으로 시대를 디자인한 여성들

조선 시대 여성의 삶이란 남편과 시집에 종속되어 큰소리 한번 못 내고 사는 것을 의미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혹은 그 제약을 넘어서서 빛나는 재능을 펼치고 당대 문화 예술, 가정 경제와 정치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역사에 획을 그은 여성들이 있었다. 주체적인 삶을 산 그들은 외부의 제약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시대를 초월하는 해법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타고난 재능으로 조선 예술사를 디자인하다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신사임당은 최근 역사학자들 중 심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훌륭한 아내요 어머니였던 것은 맞지만 500년 전 생존 당시에는 현모양처로서보다는 ‘화가 신씨’로 더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그녀 사후 한 세기가량이 흘러 17세기에 성리학적 세계관이 공고해지면서 남성 유학자들이 그녀를 ‘화가 신씨’가 아닌 ‘율곡 이이를 낳으신 어머니’로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하여 남성 중심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여인으로 신격화했다. 그녀는 단지 그림을 잘 그린 주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한 천재 화가였다. 일곱 살 때 안견의 작품을 모사하며 재능을 보였고, 친정과 시집을 오가며 육이를 하는 외중에도 작품 활동을 쉬지 않았으며, 남편이 첩을 얻는 것을 경계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자기주장도 강했다. 자식들 중 율곡이 워낙 큰 학자로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맏딸과 막내아들도 유명한 화가로 이름을 떨쳤을 정도로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우리가 아는 정숙한 현모양처의 이미지 너머에는 뜨거운 예술혼을 불사른 화가의 면모가 존재했던 것이다.

신사임당이 당대의 화가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면, 사임당과 같은 강릉 출신의 허난설헌은 문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의 누나로서 명문 양반가 태생인 그녀는 그러나 스물일곱의 꽃다운 나이에 자식도 없이 요절한다. 그녀의 천재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못했던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시 때문에 신사임당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없는 여지가 없었다. 일곱 살 때 여신동이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의 문학 재능과 미모까지 겸비하였음에도 시대와 사회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혼인 후에도 창작 활동을 멈추지 않아 방 한 칸을 가

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의 시를 창작했음에도 그것을 모두 불태워 버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다행히 동생 허균이 친정에 남아 있던 작품 210여 수를 모아 문집 <난설헌집>을 펴낸 것이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허균과 친분이 있던 명나라 사신에 의해 작품집이 중국에 소개되어 인기를 끌고, 한 세기 후에는 부산을 방문한 일본 사신을 통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인쇄 주문이 쇄도하는 등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허난설헌이 명문가 출신으로 부자유한 삶을 살다 간 반면 황진이이는 기생 신분으로 자유분방한 삶을 산 전방위적 예인이다. 전설적 미모는 물론이고 가무에 뛰어난 예능인이자 시서화에 능하고 특히 시조 창작에 천재적이었던, 오늘날까지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만능 엔터테이너이면서 엘리트 작가였다. 지족선사를 파계시킨 이야기, 벽계수와와의 일화, 대학자인 화담 서경덕과의 특별한 사제 관계 같은 스캔들을 초월해 그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었다. 연인과 단 둘이 금강산 유람을 할 정도로 풍류와 여행을 사랑하고, 당대의 풍류인, 문인묵객들과 술한 염문을 뿌리며 계약 동거를 하는 등 현대인이 보기에 황진이이는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으로 살았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스토리 때문에 황진이이라는 인물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재현되며 그 신화성을 잃지 않고 있다. 이는 당대 예술사를 평정한 그녀의 삶이 시대를 초월한 카타르시스와 감명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학구적 열정과 집필 활동으로 지식을 디자인하다

조선 시대 여성은 공식적으로는 학문을 익히는 것이 금지되었고 아무리 박식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추며 주부 역할에 전념하는 것이 미덕

신사임당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며 천부적인 재능이 돋보이는 <초충도> 8폭 병풍.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여뀌와 사마귀>, <맨드라미와 쇠뿔벌레>, <원추리와 개구리>, <양귀비와 도마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암과 연밥이 있는 물가에 두 마리의 백로가 서 있는 신사임당의 <노련도(鸛蓮圖)>. 연꽃과 함께 자주 그려지는 백로는 과거 급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예외는 있었는데, 학구적 분위기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여성이 어려서부터 ‘여신동’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났을 경우, 그리고 학자인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그 재능을 아껴 비공식적으로 장려하고 공부를 지지해 주었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부단한 노력과 열정으로 수준 높은 지적 성취를 이루면서 현모양처의 역할에도 충실한 여성은 ‘여군자’라 불리며 칭송받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혼란기인 17세기 ‘정부인 안동 장씨’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여성 장계향은 <음식디미방>의 저자다. <음식디미방>은 여성이 집필한 동양 최초의 음식 조리서로 유명하지만 이 책이 단순한 요리

레시피 모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철학적 깊이와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퇴계 학맥을 잇는 대학자의 외동딸로 태어난 그녀는 소위 말하는 전설적 신동이었다. 어려서부터 시서화에 천재성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고 당대의 명필 정윤목은 그녀가 열두 살 무렵에 쓴 초서체 글씨를 보고 “중국의 대가가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찬사를 쏟아낼 정도로 재능이 특출했다. 그녀는 기생 신분인 황진이나 불운한 환경에 처했던 허난설헌과 달리 유교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되, 자신의 지적 재능을 요리와 가정 경영에 적극 발휘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 남편과는 서로 존경하며 해로했고, 일곱 아들을 모두 훌륭한 학자로 키워 냈으며, 주변의 가난

한 백성을 구제하는 사업을 펼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였다. 지식을 직접적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일흔 넘어서 집필한 <안동디미방>을 통해 ‘곡식과 채소와 육고기와 물고기에 인의예지와 우주가 들어 있음’을 은유적으로 설파하는 지혜를 보였다. 겉으로는 다복한 양반댁 마님의 삶을 산 것 같지만 팔십 평생 내면의 열정을 발휘하여 조선 여성 특유의 조용한 카리스마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장계향의 다음 세대인 18세기 여성 임윤지당은 조선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로 일컬어진다. 장계향이 요리에 철학 지식을 녹여 낸 것과 달리 임윤지당이 집필한 <윤지당유고>는 정통 성리학 연구서이다. 임윤지당 역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오빠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유학 경전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철저한 남성 중심의 성리학사에서 그녀의 저작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유학을 깊이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경전 해석과 비평적 시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복한 부부 생활을 했던 장계향과 달리 임윤지당은 이십대에 남편과 사별해 혼자서 되어 대가족을 이끄는 실질적 가장으로 살면서 학문 연구를 이어 갔다. 그녀의 연구 업적의 가치를 간파했던 친정 동생과 시동생이 사후에 문집을 간행한 것이다.

여성 지식사의 계보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은 이는 <규합총서>의 저자인 빙허각 이씨다. 조선 후기인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그녀는 친정도 명문가요, 시택도 박지원, 정약용 등과 교류하는 당대 최고 학자 집안이어서 어려서는 물론이고 시집가서도 최신 지식과 서적들을 접할 수 있었다. 그녀가 나이 오십 넘어 집필한 <규합총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생활 백과사전이자 경제 서적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명문가의 부인으로 살다 시집이 몰락하는 바람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는데, 임윤지당은 이런 위기를 생활 경제에 눈뜨는 기회로 전환시켰다. 어려서부터 축적해 온 방대한 독서량을 통한 문헌 고증 능력에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와 주부의 세심한 시각이 보태진 것이다. 음식 만들고 술 빚고 옷 짓는 방법, 논밭과 가축 관리법, 육아와 가정 의학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생활 지식들이 집대성되어 조선 후기 생활 모습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시동생 서유구가 18년 뒤에 집필한 실학 백과사전 <임원경제지>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다.

뛰어난 경영 수완과 리더십으로 사회를 디자인하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능력을 사업에 발휘한 인물들도 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꼽히는 여성은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다.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삼전도의 항복 이후 장남 소현세자 및 차남 봉림대군 내외와 시종들이 만주 심양에 끌려가 8년이나 인질 생활을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세자빈 강씨는 대사업가로 변신했다. 남편 소현세자가 외교관 역할을 하며 서양 문물과 개혁에 눈뜨는 사이, 강빈은 적극적인 내조를 하며 심양관의 CEO가 되었다. 조선의 면포나 약재 등을 청나라에 팔아 국제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척박한 땅을 일구어 질 높은 곡식을 생산해 청나라 귀족들에게 인기를 끄는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쌓은 경제력으로 조선인 포로 석방을 주도했다. 비극적인 처지였으며 상황을 역이용하여 여성 특유의 리더십을 보인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 의심한 인조에 의해 귀국 직후 소현세자가 의문사하고 강씨도 귀양 후 죽음을 당했지만 그녀가 만주에서 보여준 외교력 및 사업가적 능력만큼은 오늘날에도 인정을 받고 있다.

여성 경제인이라 하면 제주의 어머니라 불리는 김만덕을 빼놓을 수 없다. 양인이었으나 부모 사망 후 기생집에 맡겨져 졸지에 기생 신분이 된 그녀가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은 객주를 차려 사업 수완을 발휘하면서부터다. 바다 건너 전라도 지역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유통업을 하였는데, 제주 특산 약재와 굴, 한라산 사슴의 녹용,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다룬 품목들을 살펴보면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독창성과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다른 배포와 사업 감각으로 제주 제일의 부호가 된 김만덕은 호의호식을 할 수도 있었지만, 태풍 피해로 백성들이 죽어 갈 때 전 재산을 털어 구호 사업에 앞장섰다. 이러한 업적으로 조선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생전에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큰 인물이 되었을 텐데.”라는 가족과 주변의 탄식 속에 살다 갔지만, 그녀들이 남긴 다방면의 업적과 주체적 인생관은 초시대적 가치를 지닌다. S

에디터 유수아 **글** 한성아 **참고 문헌** <조선 여성의 일생>[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글항아리], <안동 장씨 400년 명기를 만들다>[김서형, 푸른역사], <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한정주, 다산초당], <한국사 여걸 열전>[황원갑, 바움]



규방유행문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 시대 여인들은 학문을 익히고 시를 짓거나 책을 만드는 등의 문예 활동이 금기시되어 학구열이 뛰어난 여성이라 할지라도 시집가고 나면 재능을 억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화가, 시인, 예인, 성리학자, 경제인, 외교관 등으로 이름을 날린 여인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디터 유수아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서체 룩담 도음 주신 곳 차이(02-333-6692), 가원공방(02-2278-0205), 공예사랑(02-732-8589), 캘리존(02-2278-7809), 이도(02-722-0736), 우일요(02-763-2562), 공평아트샵(02-3210-0071),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오부자 유기공방(010-4052-7956), 조선호텔 김치(02-010-8768-8907), 행복한 비누집(02-730-6928), 당초문 김인자한복(02-765-4333)

시인 허난설헌

어려서부터 시를 짓고 학식을 쌓았던 난설헌 허초희. 신사임당보다 60여 년 후에 태어난 허난설헌의 생은 신사임당의 생과 비교하면 애달르게 느껴진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은 누이 허난설헌의 재주를 하늘이 내린 것이라 격찬하기도 했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삶은 불행하여 그녀는 “평생 지은 글을 불태우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재주가 자신을 오히려 걸림돌이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허난설헌의 <규원가> 서체는 룩담. 붓은 모두 유필무 작품으로 캘리존. 개다리 소반은 엠제이 작품으로 이도에서 판매. 백자 벼루와 연적은 김익영 작품으로 우일요.

화가 신사임당

정숙한 현모양처이자 뜨거운 예술혼을 불살랐던 화가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예술사를 논함에 있어 성별을 불문하는 인물이다. 어느 여름날 말리기 위해 마당에 내놓은 풀벌레 그림을 살아 있는 풀벌레로 오인하고 닭이 와서 쪼았다는 일화는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녀의 작품에 대한 증거일 것이다. 죽을 때까지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주변의 사물을 화폭에 담은 그녀의 그림은 시대에 큰 획을 남겼다(왼쪽).

신사임당의 <초충도> 족자는 공예사랑, 옥으로 된 문방사우는 모두 서울 무형 문화재 옥장 엄익명 작품으로 가원공방.



실학자빙허각이씨

의식주를 총망라한 <규합총서>라는 생활 백과사전이자 경제서를 저술한 빙허각 이씨. 여성 지식사의 계보에 획을 그었음은 물론, 실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방대한 독서량과 연륜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그리고 실생활에서 터득한 예리한 통찰력이 드러난 <규합총서>에는 음식을 만들고, 술을 빚고, 옷을 짓거나 가축 관리, 육아, 가정의학 등 다양한 지식이 집대성되었다.

옥으로 된 합과 장신구는 서울 무형 문화재 육장업익평 작품, 가원공방. 자개 장식의 경대는 여울공방 작품으로 공평아트샵에서 판매한다.



동양최초의 요리서를 쓴 장계향

정부인 안동 장씨로 더 알려진 장계향은 <음식디미방>이라는 걸출한 요리책을 저술한 여성이다. 전설적인 신동으로 어려서부터 시서화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며, 자신의 지적 재능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승화시킨 인물이다. <음식디미방>은 단순한 조리서가 아니라 학문적 성취를 음식을 만드는 것에 조화롭게 녹여 낸 철학적인 책이기도 하다.

충충히 쌓아 올린 백자 접시와 손에 들고 있는 백자 접시는 모두 정소영의 식기장 백자 종지와 사발은 김익영 작품으로 유일요. 비단 저고리는 차이 김영진 유기수저 세트는 경남 무형 문화재 제4호 이용구 전수 조교 이점술 작품으로 오부자 유기공방에서 판매. 김치는 모두 조선호텔 김치.



대서양 횡단의 모험담, 호텔 뉴욕

네덜란드 로테르담, 유유히 흐르는 마스 강 옛 선착장의 변신. 현대적 디자인에 아르누보 스타일을 덧입힌 여객선-호텔, 호텔 뉴욕에서 만나는 옛 시절의 향수.



360벌의 식기 세트를 갖춘 레스토랑은 전세계의 향신료와 엄선된 재료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요리를 제공하며, 레스토랑 한 칸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1



2

빌헤미나플레인(Wilheminaplein) 반도, 램 쿨하스가 설계한 타워를 비롯한 멋진 고층 타워들이 모여 있는 구역에 벽돌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낡은 성 한 채가 눈길을 끈다. 19세기 위풍당당한 바다의 거인이었던 이 선착장 건물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뉴욕의 엘리스 섬을 향해 떠나던 시절을 기억한다. 세이렌(반인반어의 요정)이 우는 소리, 대서양 횡단 정기 여객선이 출항을 위해 굽은 밧줄을 서서히 끌어 올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이 건물은 원래 크루즈 회사 홀란드 아메리카 리진(Holland Amerika Lijn)의 옛 선착장 건물이었다. 그 뒤 1993년 로테르담에서 가장 미래파적인 구역에 가장 매력적인 공간, 호텔 뉴욕으로 변신하기에 이른다.

내부의 목재 장식과 철 기둥, 블루 마린 색상이 어울린 실내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옛날 대서양 횡단 정기 여객선의 실내 장식을 연상시킨다. 선원들의 엄숙한 표정을 묘사한 엘렌 플라스그라프의 구상회화 작품은 생동감이 넘치고, 선박들의 불빛은 선박 내부의 좁은 통로처럼 묘사된 색채들을 비춰 준다. 더불어 리셉션 홀에서 레스토랑 홀에 이르기까지, 이민자들의 모험담을 들려주는 낡은 사진들은 엘리자 카잔 감독의 영화 <아메리카 아메리카>를 재연한다. 패종시계들과 낡은 트렁크들은 그 주인들과 함께 증기선에 오르길 기다리더라도 하듯 놓여 있고, 거위 깃털로 제작한 천사의 날개가 달린, 조명 디자이너 잉고 마우러의 테이블 램프 '루첼리노'는 은



4



5



3

1,3 선원들의 엄숙한 얼굴을 묘사한 엘렌 플라스그라프의 구상회화 작품과 사진 인테리어 전체는 대서양 횡단 선박들의 실내 장식을 연상시킨다. 272개 룸은 제각각 편안함과 취향을 아우르며 모던하고도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다. 4 리셉션 홀에서 이어진 복도에서 호텔 소속 이발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옛 정취가 느껴지는 샤워실.

1, 2 낮은 사진들은 19세기에 신세계로 가기 위해 유럽을 떠나는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들려준다. 3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과 천사의 날개가 달린 램프 '루첼리노'의 빛이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4 낮은 천장의 의자가 놓여 있는 공간을 둘러싼 화이트와 블루의 어울림은 현대 회화 작품을 연상시킨다.



은한 빛을 낸다. 72개의 룸은 스칸디나비아와 이탈리아 디자인, 팝 아트와 빈티지 스타일의 가구를 모아 놓은 독특한 실내 장식이 어우러지며 높은 천장 아래 제각각 특이한 컬러와 차원을 담고 있다. 스위트룸들은 예전 홀란드 아메리카 리진 중역들의 사무실이자 아파트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한 것인데, 네덜란드 아티스트 데오도르 콜렌브랜더(Theodoor Colenbrander)의 카펫과 목재 장식으로 꾸며졌고, 편안한 안락의자들을 갖추고 있으며, 발코니 주변에는 산책로 겸 침실이 배치됐다. 무엇보다 이곳의 장관은 발코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마스 강(Mass: 프랑스 동북부에서 벨기에 동부, 네덜란드 남부를 거쳐 북해로 흘러드는 강, 불어로는 뫼즈 강)이다. 나무 부교 위에 지어진 덕에 로테르담의 수평선과 항구, 마스 강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것. 더불어 전 세계의 향신료와 엄선된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를 제공하는 호텔 1층의 레스토랑은 미식가들의 기항지다.

층계를 이루는 디자인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적 감수성, 지나치는 시간들이 운명처럼 조우하는 공간, 호텔 뉴욕, 20세기 초 타이타닉호의 비극으로 끝나 버린 줄로만 알았던 바다를 향해하는 고전적 유희의 감흥이 21세기 퀸 메리 2호의 탄생으로 부활했듯이, 여러 세기를 흘러보낸 호텔 뉴욕에서 경험하는 대서양 횡단 모험담은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음악에 맞춰 춤추듯 끊없이 이어지는 선박들의 행렬 앞,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에 대한 찬사가 커져만 간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베네란다 팔라디노(Veneranda Paladino) 사진 프랑수아 구디에(François Goudier)





석어당에 설치한 이수경의 <눈물>. 500년 역사 동안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 석어당에 눈물 모양의 조각을 설치했다. 수천 개의 LED 조명에 굴절되고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 지난 역사의 슬픔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궁궐의 역사와 눈물, 아스라이 기억되고 아름답게 추억되다

덕수궁 전각과 후원에서 열리고 있는 <덕수궁 프로젝트>는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시공간을 선사한다. 사람 냄새 나지 않던 죽은 공간들은 이 시대 예술가들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궁은 더 이상 과거와 함께 묻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고 즐기며 새로운 추억을 덧붙일 수 있는 예술 공간이 되고 있다.



1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 도예가 임항택의 도자 파편들로 만든 작품. 2,5 서도호의 <함녕전 프로젝트-동은돌, 덕수궁 함녕전>의 일환으로 설치한 보료 3채. 함녕전을 청소, 도배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 또한 무용가 정영두의 퍼포먼스를 연계시켰다. 3 정서영의 설치작품 <마음속으로 정해라>. 정관현은 1900년경 러시아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서양의 발코니가 혼합되어 있는 이방기르드한 공간이다. 정서영은 현대적인 요소의 혼합을 표현하기 위해 정관현 내부에 있던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 거울 조각을 끼워 넣었다. 4 중화전의 전면을 미디어 영상으로 뒤덮은 류재하의 미술관 내 작품. 천장의 수백 개의 LED 모듈과 바닥의 레이저 선들이 혼돈을 만들며 특별한 시공간으로 관객을 인도한다.

스산했던 전각이곳저곳에 닿은 현대 예술가들의 손길

최근 각 궁궐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야간 개장도 하고 투어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면서 궁은 젊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덕수궁 프로젝트>는 콘서트나 역사 교육이 아닌 '현대미술'을 궁이라는 공간에 녹여 냈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작가들은 현재 미술, 설치, 퍼포먼스, 디자인, 무용, 공예 등 각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이기에 미술적 의미도 크다.

규모가 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비해 덕수궁은 접근성은 좋은 대신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초라한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덕수궁이 '경운궁'이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세 배나 넓고 전각도 170동 이상 되는 웅장한 곳이었으며, 20세기 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궁'으로 삼았을 때는 일제에 대항하기 위한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김인혜 학예사에게도 덕수궁은 특별한 곳이었다고 한다. 늘 왔다 갔다 하며 정들었던 곳,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안식을 주던

이곳을 과거의 공간으로 두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여 '궁의 재발견'을 도모하고 싶었다. 궁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퍼포먼스까지 하는 것은 문화재 손상의 우려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뜻밖에도 문화재청에서 반색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기존의 작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콘셉트에 맞게 새로 창작하게 하는 커미션 워크로 진행되는 것인데다 국내외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 있어 참가 자체가 쉽지 않은 쟁쟁한 예술가들인데도 모두 다른 일정을 제치고 발 벗고 나섰다. 그리하여 덕수궁의 중화전, 행각, 함녕전, 덕홍전, 석어당, 정관현 등 전각과 후원에 작품들이 설치되었고, 무용, 퍼포먼스 등 공연도 열리며, 야간에는 화려한 미디어 영상 쇼가 상영된다. 관람객들이 쉬어 가는 중화전 행각의 스피커에서는 옛 궁중 소설을 낭독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후원 한 곳에서도 영상물이 나온다.

고종이 쓸쓸히 승하한 함녕전은, 국제적인 설치 미술가 서도호에 의해 온기를 되찾았다. 내부를 말끔히 청소하고 도배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마루도 공기를 먹여 정성스레 닦아 윤을 냈다. 이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우리 앞에 덩그러니 남은 깨끗한 빈 방은 고종의 생전을 떠올리게 한다. 고종이 주무실 때 보료 석 채를 깔았다는 증언대로 그곳에는 고종과 명성황후와 임비를 연상케 하는 주인 잃은 보료 석 채가 나란히 깔렸고 무용가 정영두가 그 위에서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 옆의 덕홍전은 명성황후의 신주가 있던 곳인데, 1912년 일제가 자기네들의 접견 장소로 바꿔 버렸다. 가구 디자이너인 하지훈은 이곳에 크롭으로 도장한 좌식 의자들을 설치했다. 관람객들은 바닥에서 울룩불룩 솟아 있는 설치물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아무데나 앉아 보는데, 등을 기대고 발을 걸쳐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편안하고 아늑해서 한동안 쉬고 싶어진다. 천장과 벽의 화려한 단청 무늬가 의자 표면에 일렁이며 투영되는 모습이 묘한 감흥을 자아내는 가운데 사운드 아티스트 성기완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지나쳐 갔을 덕수궁의 구석구석을 새삼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관람객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던 전각의 마루 위까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 살펴보고 느껴 볼 수 있다.

유독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는 작품은 석어당에 설치한 이수경의 <눈물>이다. 석어당은 임진왜란 때 피신을 갔다 돌아온 선조가 머무르다 승하한 곳이고, 광해군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인목대비가 5년간 유





1



1 덕홍전에 설치한 하지훈의 <자리>. 덕홍전은 원래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시던 곳을 192년 일제가 개조하여 이름을 바꾸고 내부도 입식 구조로 바꾸었다. 하지훈은 이 이름다운 공간에 강제적인 왜곡의 역사가 있었음을 주목, 바닥에 크롬 도장의 좌식 의자를 설치했다. 벽면과 천장의 무늬가 의자 표면에 반사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사운드 이티스트 성기완의 음악이 공간을 채운다. 2,3 김영석의 <Better Days>. 4 평생 덕수궁을 사랑했다는 김영석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우리 역사 속의 여인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고 한다.

폐되었던 곳이며, 아버지 고종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비운의 황녀 덕혜옹주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단청이 칠해지지 않은 소박한 건물의 마루에 올라가 왼쪽 방 안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영롱하게 반짝이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천 개의 LED 조명으로 반짝이는 이 눈물은 덕수궁을 거쳐 간 왕과 왕비와 공주와 궁녀들의 한 많은 삶이 응결된 듯 아련한 감동을 준다.

한복디자이너 김영석, 덕혜옹주의 행복했던 시절을 재현하다
 <눈물>이 빛나는 맞은편 방에는 마치 그 슬픔을 잊게 해주려는 듯 화사한 여인의 공간이 꾸며져 있다.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이 직접 제작한 보료와 한복, 그리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공예품들로 꾸민 <Better Days>이다.

김영석은 서양의 동화 속 공주라고 하면 예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인식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공주는 별로 기억되지 않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덕혜옹주와 이방자 여사처럼 가까운 역사 속에서 슬픈 스토리를 간직한 왕실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해 보고 싶었다고 한다. 게다가 덕수궁은 어린 시절부터 담을 넘으면서까지 즐겨 찾은 만큼 그가 사랑한 곳이었기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의욕이 남달랐다. 의뢰를 받고 보니 그가 사랑한 공간에서 꿈꿔 온 작업을 하게 되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덕혜옹주가 어렸을 때 고종에게 사랑받았던 시절을 되살려 주고 싶었습니다. 이 방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어요. 공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죠.”

김영석은 단지 고증을 통한 사실적 재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공주의 짧지만 행복했을 한 시절의 일상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

도록” 되살렸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청소부터 시작해 벽지도 새로 발랐다. 침구와 방석에는 옛 궁중에서 사용한 것보다 화사하고 소녀적인 색상을 썼고, 덕혜옹주가 어릴 때 입었던 한복을 고증하여 제작하되 그 당시의 옷보다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방 안의 가구와 장신구와 찻잔 등 장식품들은 컬렉터로도 유명한 김영석의 개인 소장품들이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전통 공예품 중 개화기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것들을 선별하여 가져왔다고 한다. 그중에는 당시 궁에서 사용됐을 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를 초월해 “행복한 시절을 재현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풍조차도 소녀의 방에 어울리는 화사한 것을 골랐다. 방 한쪽 허공에 반투명하게 일렁이는 덕혜옹주의 영상물과 아기자기한 방의 내부가 묘하게 어우러져 마치 그녀의 삶을 위로해 주는 듯하다.

“덕혜옹주의 인생은 곧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인생이었어요. 어둡고 슬프고 아팠던 역사를 어루만져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어요. 금지된 공간이었던 궁 안을 일반인이 봄으로써 사랑하게 되고, 슬펐던 과거를 재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S

에디터 문비송 글 한성아 사진 문성진

— 雪花文化展 —

흙,
숨쉬다.
용기

전통 공예
전승 작가

정윤석
방춘웅
김청길
허진규
배연식

현대 작가

권진희
이기욱
양민하
황형신
SWBK

피부온도를 다스리면 피부 스스로 노화에 강해집니다 설화수 소선보크림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노화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열에 의한 자극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노화에 취약한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 편백나무 성분을 적용한 소선보크림은
생활 속 열로부터 피부의 온도를 지켜 피부 스스로 나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부온도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안티에이징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소선보크림

Sulwhasoo



TPF40: TPF란 열차단지수(Thermal Protection Factor)의 약자로
TPF40은 노출된 열의 40% 이상을 차단해주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설화문화전

2012 설화문화전에서 선보이는 <흙, 숨쉬다, 옹기> 전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청자나 백자가 아닌 실생활에 널리 쓰인 우리 그릇 옹기에 주목했다.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를 넘어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이의 삶과 정신, 그리로 그것을 빚는 손에 녹아 있는 우리의
인생사까지 두루 살펴보고자 했다. 옹기에는 우리만의 친근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기에.



전남 강진 옹기, 정윤석

중요 무형 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어린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배웠던 것처럼, 옹기장 정윤석은 선조들에게서 옹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워 옹기를 만들고 세상에 내놓았다. 현재는 수많은 과거가 쌓여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그가 만들어 낸 옹기도 그렇다. 흙을 빚은 것은 그의 손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옛날부터 옹기를 만들었던 선조들의 땀과 노력까지 담겨 있다. 옹기장 정윤석은 자신이 만든 옹기에 담긴 전통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앞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옹기를 구웠다.

Just as children learn all things about the world from their mothers, master Jeong learned all things about onggi from our ancestors, made onggi and introduced it to the world. The present is a result of the accumulation of numerous pasts. It is same with onggi made by Jeong. His hands knead earth but the sweat and labor of our ancestors who made onggi since long ago is reflected in his work. Master Jeong has been baking onggi sincerely hoping that he can share the tradition contained in his onggi with many people and the tradition lasts in the future.



충남 홍성 옹기, 방춘웅

중요 무형 문화재 제38호 옹기장

저녁때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자식들 배움을까 걱정하며 서둘러 아버지가 만든 항아리에서 곡식을 퍼서 밥을 지어 주셨다. 그때 어머니가 사용하던 옹기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여전히 어렸을 적 보았던 그 항아리를 잊지 못한다. 그래서 방춘웅은 어머니가 품삯으로 받았던 먹거리들, 자식들의 입으로 들어갈 먹거리를 조금씩 담아 두었던 어머니의 옹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옹기가 좋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이 써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His mother came back from a day's hard work, she was worried about us not getting enough to eat and she cooked by taking the rice out of a jar made by my father. The onggi his mother used is still fresh in his memory. He still can't forget the jar. He has made onggi like the one his mother used to use to put food in, the food she bought with her hard earned money and which she saved for her children. And he wishes people would realize how good it is and use it more.





제주 옹기, 김청길
옹기 장인

제주의 전통 옹기인 허벅은 제주에서 각종 절그릇을 굽는 옹기장인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으뜸 수단이다. 옹기 장인 김청길은 장례를 치를 때 사돈집에서 팔죽을 담아 와 조문객을 대접하던 커다란 죽허벅, 소녀들이 사용하던 대바지, 꼬마들이 사용하던 애기대바지, 물병·간장병·술병 등으로 사용하던 애기허벅 등 다양한 허벅을 선보인다. 등그런 몸통에 작은 주둥이가 달린 갖가지 허벅을 통해 제주인의 삶과 풍습을 엿볼 수 있다.

'Heobeok,' which is traditional onggi of Jeju, is the most important means to know the abilities of onggi makers who bake various kinds of earthenware in Jeju. Master Kim Cheong-gil introduces various 'heobeok,' such as a large gruel 'heobeok' which was used to treat guests during a funeral service, 'daebaji' used by girls, 'aegi daebaji' used by children and 'aegi heobeok' used as a water bottle, soy sauce bottle and liquor bottle. Through these 'heobeok,' people can look at and learn about the lives and customers of Jeju people.



울산 울주 옹기, 허진규
옹기 장인

지금이야 수도꼭지만 돌려도 물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던 그때 물을 저장하는 큰 그릇인 물두멍은 부엌의 필수품이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수시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부엌 한쪽 바닥에 묻혀 있거나 서 있는 물두멍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고 한다. 옹기 장인 허진규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했던 물두멍을 만들어 일상에서의 옹기의 면모와 중요성을 표현했다.

Now only by turning the tap on does the water come out but it was not like that in the past. Storing water was usual at that time. The huge plate called muldumung that stored water was a must-have item in the kitchen. Our mother in the past felt very rich and went to bed only after filling the muldumung or stood on one side of the kitchen after drawing some water from the well in the village. The master Heo Jin Gyu given expression to the appearance and importance of onggi in daily life by making muldumung a required item for living the traditional life.





경기도 화성 옹기, 배연식

서울 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 전승 기능자

옹기에 대한 새로운 쓰임새를 찾았으면 한다는 옹기장 배연식이 초창기에 보여 준 푸레도기는 전통 형태에 충실했다. 하지만 아파트라는 현대 생활 양식에 맞도록 하려면 외부에 두는 고전적인 옹기가 아니라 실내에 두는 새로운 옹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집 안에 들여놓아도 손색없는 장식성과 조형미를 갖춘 푸레도기를 개발했다. 전통 푸레도기 방식은 유지하되 요즘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해 문양과 질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21세기의 푸레도기이다.

He would like to find new uses for onggi. The puredogi displayed by master Bae Yeon Sik in the beginning was in the traditional form. However, he thought that we should make a new onggi suitable for inside not the traditional onggi placed outside in order to fit with the modern life style of living in apartments. Therefore, he developed puredogi that had decorations and beautiful sculpture that would be good for inside houses. It is 21st puredogi expressing patterns and textures in a modern way for modern people as well as maintaining the traditional puredogi technique.



‘콘셉추얼 코어’ 옹기, 권진희

도예가

옹기토로 만든 ‘콘셉추얼 코어’는 기존의 작업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만 질박한 옹기토로 바꾸었다. 도예가 권진희는 옹기 제작 방식이나 옹기 형태보다 재료에 집중한 것. 일정한 규격의 띠를 반복적으로 쌓는 그녀의 작업 방식은 여전하지만, 제사에 쓰는 그릇에서 영감을 받아 그간 고집하던 원추형에서 탈피해 작업물을 2단씩 쌓았다. 경건한 제기 형태, 빛과 그림자 등이 어우러져 은유적인 공간을 연출한다.

The ‘Conceptual Core’ made of ‘Onggi’ soil just switched its materials to simple ‘Onggi’ soil with her existing work style maintained as it is. Ceramic Artist Kwon, Jin-hee concentrated herself more on materials than the production method of ‘Onggi’ and the form of ‘Onggi.’ Her work method of piling up earth bands with a regular size is still the same. However, the artist inspired by a dished used for rituals piled her work object by 2 levels by breaking away from the form of a cone in which she has persisted all this while. Solemn form of ritual items, light and shadow are mingled with each other to create a metaphoric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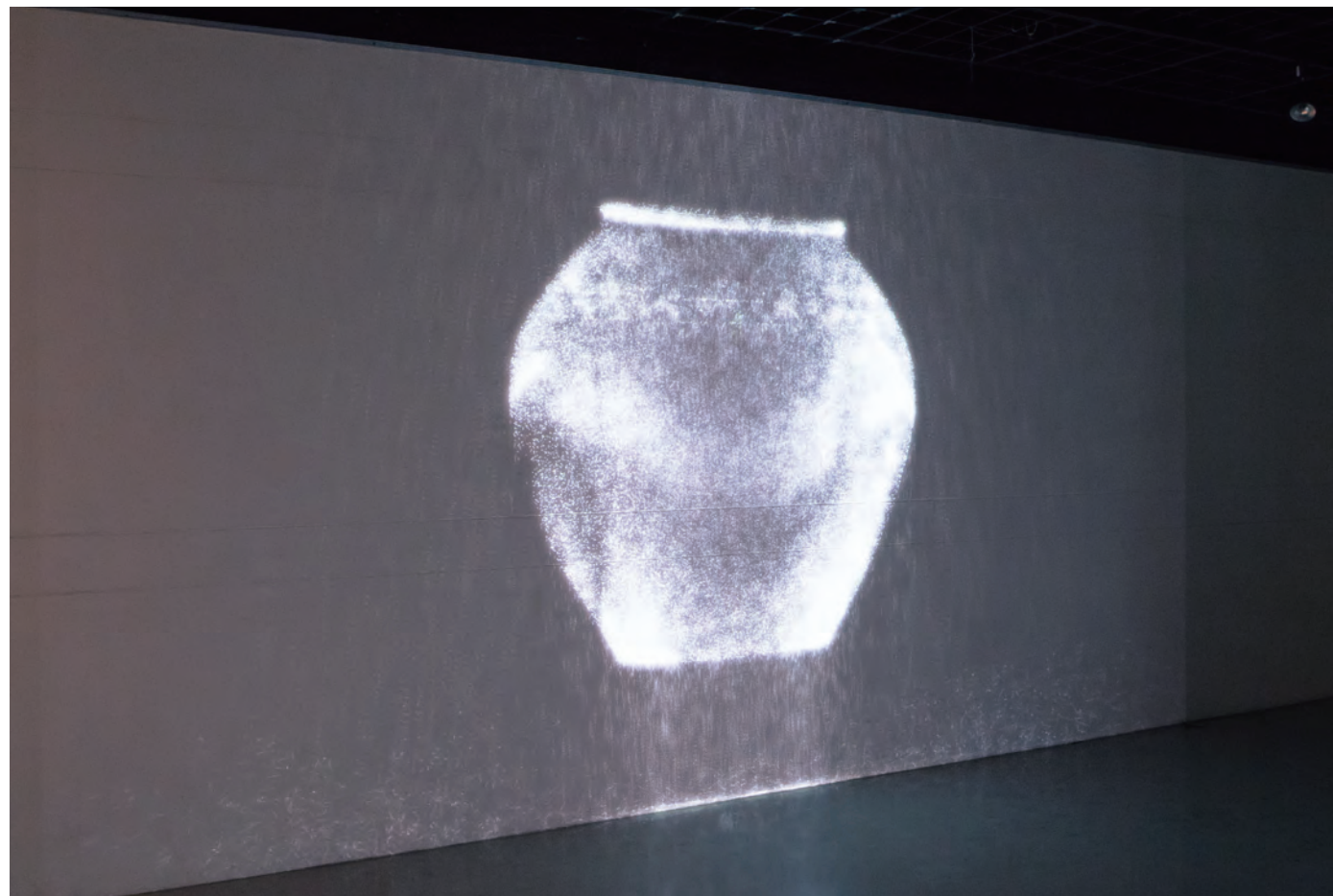




옹기토와 백토가 만난 옹기, 이기욱
도예 작가

옹기의 매력은 재료인 옹기토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예 작가 이기욱은 백자 형태에 옹기토의 색감을 더한 실험적인 작업을 했다. 옹기토를 흙물로 만들어 고형 주입 기법을 이용한 것. 옹기토와 백토의 비율을 달리해 옹기토의 색감에 변화를 주거나 색감이 다른 조각을 접합하기도 하고, 백자로 성형한 기물에 흙물을 입히는 방법으로 백자와 옹기가 결합된 작품을 완성했다.

Unlike the factory-made earth, the fact that a material itself also contains the possibility of diverse changes is attractive to him. Ceramic Artist Lee Ki-wook did experiments on the addition of color sensations of onggi clay to white celadon. The artist Lee, unlike the traditional onggi production method, made a form using a solid casting technique by making onggi clay into slip. He made slip by making the ratio of onggi clay and ratio of white clay different, giving change to the color sensation of onggi clay.



미디어 아트 옹기, 양민하
미디어 아티스트

허상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 아티스트 양민하는 물레를 이용해 옹기를 빚는 과정을 재해석했다. 흙 입자가 먼지처럼 공중에 흩뿌려져 있고 그 입자가 다시 모여 장인들이 만들어 낸 진짜 옹기와 똑같은 형태를 만들어 낸다. 작은 점 하나 하나가 모여 허상의 옹기가 완성된다. 그는 실체가 없는 디지털 미디어와 물리적 형태를 갖춘 옹기를 하나로 묶는 과정을 보여 주고자 했다.

The 'Onggi' made by artisans using their hand is reborn as the virtual 'Onggi' according to the algorithm made by the artist Yang. Media Artist Yang Minah, who creates virtual images reinterpreting the process of making 'Onggi' using a spinning wheel. Earth particles are strewn in the air like dust. Those particles gathered again re-make exactly the same form as the true 'Onggi' created by artisans. Dots gather one by one to create a virtual image of 'Onggi'. In closing Yang Minah attempted to show the process of binding the 'Onggi' equipped with immaterial digital media with 'Onggi' equipped with a physical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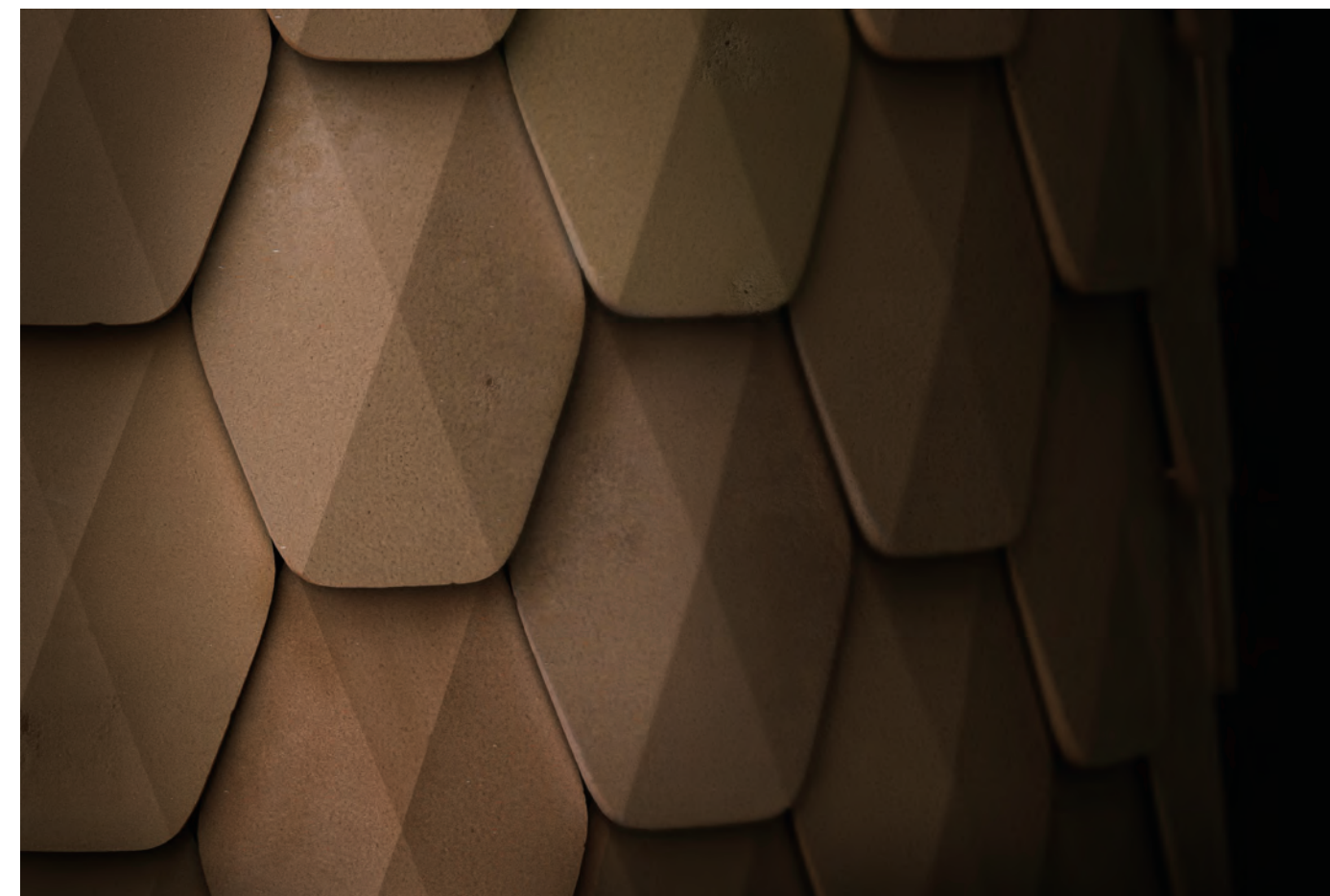




옹기의 변신, 황형신
가구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황형신은 불의 온도에 따른 흙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선불리 전통을 재해석해 보여 주려 하지 않고 옹기 제작 방식이나 옹기토의 재료적 성질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했다. 재료의 다양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 나무로 제작한 몰드에 직접 옹기토를 눌러 찍고, 굽는 방식을 달리해 변화무쌍한 흙의 표면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He aimed to show the change of earth consequent to fire temperatures. Therefore, at this exhibition, he won't try to rashly show his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 Instead, the author came to work on this project with interest in the material properties of 'Onggi' soil or its production method. In other words, the author placed his focus on diverse possibilities. The author is going to show a kaleidoscope of the earth by push-printing the 'Onggi' soil in a wooden mold and changing the method of baking it.



건축재로서의 옹기, SWBK
산업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그룹 SWBK는 옹기에서 옹기토에 주목했다. 흙을 빚어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옹기토를 틀에 넣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었다. 옹기를 기왓장처럼 겹겹이 이어 붙이면 훌륭한 외장 마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시멘트나 황토가 아닌 옹기토를 건축 외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해 벽돌처럼 하나의 유닛으로 된 옹기를 만들고자 했다. 그렇게 만든 옹기토 구운 조각을 기왓장처럼 겹겹이 이어 붙이면 건물 외장재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SWBK, which was established by industrial designers, paid attention to 'Onggi' soil from 'Onggi'. It seems to be possible to apply 'Onggi' soil other than red clay or cement to building claddings. We thought of 'Onggi' as a unit like a brick other than the method of making 'Onggi' to create a form. We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use the baked pieces of onggi soil as claddings of buildings when the baked pieces are linked to each other layer upon layer like roof tiles.





10인의 손끝에서 옹기의 진면목을 발견하다

흙, 물 그리고 불이 만나 빚어진 옹기는 자연의 산물이다. 서울에서 시작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 이르는 옹기의 전국 기행은 전통 옹기 장인들의 열정으로 가시화되었다. 여기에 도예, 미디어 아트, 그리고 가구 등으로 승화된 현대적인 옹기의 미감은 2012 설화문화전 <흙, 숨쉬다, 옹기>의 작가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정윤석



방춘웅



김청길



허진규



배연식

정윤석 ·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Jeong Yun Seok/Onggija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96

옹기로 유명한 전남 강진군 칠량면 봉황 마을에서 유일하게 옹기를 만들고 있는 옹기장. 흙을 넓게 펴서 만든 질판을 이용하는 쳇바퀴 타림 방식을 고수하는 정윤석 장인의 가장 큰 바람은 옹기에 담긴 전통을 많은 이들과 교감하는 것이다.

방춘웅 · 충남 무형문화재 제38호 옹기장

Bang Chun Wong/Onggijang, Chungnam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38

대대로 옹기를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방춘웅 옹기장은 한쪽 발로 물레를 돌리고 장작 가마에서 옹기를 굽는 전통적인 제작 기법을 지키고 있다. 1980년 이후 충남 홍성에 정착해 옹기를 만들고 있는 그에게 흙과 불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김청길 · 옹기장인

Kim Cheong Gil/Onggi Master

제주 옹기의 맥을 잇고 있는 김청길 장인은 성질이 남다른 제주 흙으로 옹기를 빚기에 육지의 그것과는 달리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산재가 쌓여 생긴 화산회토는 가볍고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천연의 윤기가 돌며, 옹기의 호흡이 원활하여 장이 더 잘 숙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진규 · 옹기장인

Heo Jin Gyu /Onggi Master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옹기 마을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은양읍 외고산에서 활동 중인 81인의 옹기장 중 가장 젊은 48세의 허진규 장인.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옹기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의 집념은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옹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가시화되었다.

배연식 · 서울 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전승기능자

Bae Yeon Sik /Vocational technician of Seoul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30

서울 무형 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된 부친 배요섭 옹기장의 뒤를 이어 4대째 옹기를 만들고 있는 배연식 장인. 국가가 지정한 푸레도기(푸르스름한 도기) 제작 전승 기능자이다. 빛을 흡수해 오묘한 색감을 띠는 푸레도기는 궁궐에서 사용하던 발효용 저장 옹기로 알려져 있다.



권진희



이기욱



양민하



황형신



SWBK

권진희 · 도예가

Kwon Jin-hee/Ceramic Artist

일정한 규격의 흙 띠를 계속 쌓는 '콘셉추얼 코어(Conceptual Core)'라는 작업 방식을 고수하는 도예가 권진희. 반복, 제한된 색상 그리고 절제된 형태로 미니멀한 현대 도예의 미감을 보여 주는 그녀는 조형성이 강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이기욱 · 도예 작가

Lee Ki-wook/Pottery Writer

장식 기법으로 사용되던 면치기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자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이기욱의 작품은 기하학적인 선과 면이 만들어 낸 울동감과 비례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 백자의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새로운 백자를 탄생시키고 있다.

양민하 · 미디어 아티스트

Yang Minha/Media Artist

컴퓨터와 미디어를 이용해 작업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양민하. 점 하나를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언어를 수정하고, 스크린을 1천 번 넘게 갔다 갔다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를 '디지털 장인'이라 칭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황형신 · 가구 디자이너

Hwang-shin/Furniture Designer

플라스틱, 콘크리트, 종이 등 각종 재료로 조명과 가구를 만드는 가구 디자이너 황형신은 흙이라는 물성을 접하며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에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분할과 연결(Division & Connection)'이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WBK · 산업 디자이너

SWBK/Industrial Designer

이석우, 송봉규 두 사람의 이니셜을 조합한 SWBK. 산업 디자이너답게 오리지널리티는 간직한 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그들은 재료에 민감한 작업의 특성상 형태 보다는 재료에서 디자인의 근원을 찾는다. 이번 설화문화전에서는 현대 작가로 참여한 동시에 아트디렉터로서의 역할로 겸했다.





2012 설화문화전 '흙, 숨쉬다. 옹기'

고수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들의 눈은 남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단박에 읽어낸다. 핵심을 찌른다. 사물의 본질을 투시하는 맑고 깊은 눈, 평범한 곳에서 비범한 일깨움을 이끌어내는 통찰력이 있다. 생활 속 가까이에서 늘 우리 곁에 있던 우리의 옹기를 업으로 삼아온 장인들과 그들의 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통찰력과 신선함으로 빛을 내는 현대 작가들의 '옹기'에 대한 오마주가 펼쳐졌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는 궁극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리의 전통미를 찾아 계승 및 발전시키고 있는 전통, 현대 작가의 작품과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설화문화전'은 한국적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적인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2011년 10월 11인의 전통 및 현대 작가들과 '가설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한 작년에 이어 올해는 10월 17일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소격동 학교재 갤러리에서 '2012 설화문화전'이 열렸다. '흙, 숨쉬다. 옹기'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돼 왔지만 주목 받지 못했던 옹기를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옹기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보여줬다. 그 뿐 아니라 뛰어난 옹기토를 활용한 현대적 기법을 통해 옹기가 지닌 색다른 미적 가치를 표현했다.

옹기의 기본 재료가 되는 옹기토는 일반적인 흙과 달리 바람이 통하고 숨을 쉬게 하여 옹기 속 저장물이 쉬거나 썩는 것을 막아주는 뛰어난 방부성, 발효성, 정화능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얻은 옹기는 모든 성분이 자연으로 돌아가도 무해한 자연 환원성을 가지고 있어 옹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또한 한국 옹기의 우수성은 다양한 용도와 단순하면서도 조형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강한 점성과 불의 소성을 거친 강도에 장인의 기술이 더해져 커다란 대형 옹기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제작 기술 또한 세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옹기는 문화재청이 꼽은 우리 민족 100대 상징 가운데 하나이며 영어로는 발음 그대로 'Onggi'라고 쓰여진다. 청자는 'Celadon', 백자는 'White Porcelain'으로 표현되는 것에 반해 옹기는 영어로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은 옹기를 한국이 가진 문화로 인식했다는 것. 이렇듯 옹기는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왔지만 옹기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주거환경, 식생활의 서구화 등 많은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 옹기를 접할 기회도 점점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 설화문화전'은 이러한 옹기에 주목하여 그 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다양한 시선과 새로운 면모를 이번 전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오랫동안 계승되어 온 전통과 현대 작가들의 열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시를 그려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전통 옹기장 정운석, 방춘웅, 김청길, 배연식, 허진규와 옹기를 다양한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한 젊은 작가 양민하, SWBK, 권진희, 이기욱, 황형신이 참여함으로 다채로운 전시를 보여줬다.

불광불금이라 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출세에 보탬이 되든 말든 혼자 두벽두벽 걸어가는 정신이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것저것 따지지만 해서는 전문의 기예, 즉 어느 한 분야의 특출한 전문가가 될 수 없다. 흙로 걸어가는 정신을 갖추고 전문의 기예를 넘어 장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옹기 장인들과 현대판 장인의 삶을 사는 10명의 작가들이 펼쳐 놓은 옹기에 대한 고찰은 그것의 깊이와 울림만큼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려냈다. S

에디터 문비송



1 현대 작가들의 손으로 빚어진 새로운 미감의 옹기 2 '2012 설화문화전'이 개최된 학교재 갤러리.

명신(名臣)의 근심 풀어 준 서울 도심의 비밀 정원

차를 타고 외곽으로 가야 볼 수 있는 풍경을 서울 한복판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종로구 부암동 백사실 계곡, 부암동에서 세검정으로 이어지는 이 작은 계곡은 도시의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청정함까지 유지하고 있어 놀라움을 더한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명신 백사 이항복의 별서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비밀 정원은 인공의 힘이 더해진 여느 공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품격을 지녔다.



1613년,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20대 중반, 관직에 오른 이후 줄곧 머리에 써 온 오사모(烏紗帽)가 오는 따라 친근만근 무거웠다. 흉배에 걸쳐져 있던 각대를 풀자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이 석자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영의정이란 자리가 가시방석이나 한 가지였다. 백사(白沙) 이항복은 자신의 운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미 예조정랑으로 있던 30대 중반에 기축옥사를 통해 당쟁의 피비린내를 몸소 겪었던 그다. 자신을 천거했던 율곡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엔 서인의 영수가 되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오는 북인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단련된 그였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광해의 등극 이후 북인의 기세를 꺾을 방법이 없지 않은가. 환갑을 앞둔 몸도 노쇠해, 전의를 불태울 기력이 달렸다.

이튿날 백사는 청병(淸病)을 하고 등청을 미룬 채 집을 나섰다. 뒤따르던 하인도 물리고 나선 길이었다. 경복궁을 오른쪽 어깨에 두고 그는 부암동 언덕을 올랐다. 세검정으로 이어진 계곡을 따라 자신의 별서로 갈 작정이었다. 갑자기 비가 내려 가뜩이나 험한 길이 더욱 거칠어졌다. 문득 왜란이 지진 처럼 이 땅을 흔들던 그날이 떠올랐다. 황망한 가운데 선대왕 선조가 피란을 떠난던 날도 오늘처럼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왜군을 막을 길은 없고, 신하된 자로 주군의 피란길을 따라나서는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1592년, 백사는 30대 중반의 촉망받던 신진 관원이었다. 백사와 같은 뛰어난 관료가 당시 '짧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선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전시였기에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발휘한 그의 역량은 더욱 빛났다. 그 모진 시간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건 유년시절부터 천재성을 겨뤄 온 다섯 살 손위 친구 한음 부원군 이덕형 덕이었다.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해 전세를 역전시킨 백사의 외교가 탁월한 성과를 올렸고, 그 공로로 그는 1601년(선조 34) 호종(扈從)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하지만 백사는 그런 자신의 인생역정이 달갑지 않았다.

비가 그치자 걸음을 재촉하던 그가 너럭바위에 앉아 젖은 옷과 땀을 말렸다. 신상의 변화를 직감해서였을까. 돌 아래 숨어 있던 가재가 빠르게 고개를 내밀자, 죽마고우였던 한음이 불현듯 그리웠다. 어린 시절 수많은 일화를 함께 남겼던 오성과 한음이 아니었던가. 그 한음이 얼마 전 쓸쓸하게 병사했으니, 이항복은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심정이었다. 스산한 가을 바람에 예순을 앞둔 노구가 견딜 수 없이 버거웠다. 물가에 서 있던 감나무 옆구리를 짚고 일어서던 그가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항복의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 가지가 휘어져 자신의 집으로 넘어오자, 자신의 것이라며 감을 따던 권율. 명민한 이항복은 권율의 방문에 주먹을 찢러 넣고는 “그럼, 이 주먹도 당신 것이요?” 하고 일갈했었다. 그런 인연 때문이었을까? 행주대첩을 이끈 명장 권율은 이항복을 사위로 받아들였다. 장인이 생존해 있다면 그는 여쭙고 싶었다.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말이다. 다시 얼마를 내려갔을까. 저만치 고즈넉한 별서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래,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저 곳에서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은 잠에 들고 싶다.”

위의 짧은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픽션이다. 그 이유는 ‘휴(休)의 공간을 찾아서’ 연재를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택한 곳이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의 백사실 계곡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백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백사 이항복의 별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석만 남아 있는 그 별서 터가 백사의 별장이었다면, 위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면 현재의 백사실 계곡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1 세월이 흐르듯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백사실 계곡. 푸른 이끼가 사람들의 손때가 덜 달 곳이었음을 웅변한다. 2 백사실계곡이란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계곡의 정식 이름은 '백석동천'이다. 북악산의 경치 좋은 곳이란 뜻을 담고 있다. 3 최근 입소문을 타고 이 계곡의 빼어남이 널리 알려지자, 방문객이 몰려 훼손의 몸살을 앓고 있다.



있을까. 작은 설레임이 있다.

알고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암동 주민센터 쪽에서 계곡을 찾아야 등산이 아니라 하산이 된다. 힘이 부치지 않으니 풍경을 음미하기엔 하산이 훨씬 효과적이다. 친절할 안내판을 따라 길을 걷는다. 인터넷의 힘에 의해 도심의 비밀 정원이라는 이곳이 요즘 주차난과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먹구름이 잔뜩 낀 평일 오후라서인지 우려와 달리 한적하다. 띄엄띄엄 산책하는 사람들과 마주치지만 걷는 자의 권리인 '상상력'을 방해받는 정도는 아니다.

북악스카이웨이 옆길을 따라가자 드디어 계곡이 시작되었다. 백사실 계곡은 예나 지금이나 기특한 공간이다. 그 옛날엔 도심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쉼터가 되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백사실 계곡은 이 땅에 산재한 수려한 계곡에 견줄 정도의 비경은 아니다. 교외로 나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 주는 '미니어처'라고 생각하면 상식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숲 속에 안긴 계곡 길은 우선 공기부터가 다르다. 곳곳이 한자리에 서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신의 호흡으로 상생을 실천하는 나무들의 노고로 콧속이 시원해진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크고 작은 현수막과 안내판이 휴식을 즐기려는 나그네의 심기를 건드린다.

'개도맹 서포터즈.' 도처에 등장하는 줄임말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미간이 찌푸러지지만, 개구리와 도마뱀, 땀방울을 보호하지는 가늠한 모임의 경고문이니 넘어가기로 한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저런 플래카드의 공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도무지 이곳이 서울 한복판이란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풍광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아주 느린 박자로 다시 걷는다. 이 계곡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달랜 이가 어디 이향복만이었을까. 오랜 세월 숲 속에 저장돼 있던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만 같다. 사람들은 이곳을 백사실 계곡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백석동천(白石洞天)'이다. 백석은 북악산을 가리키며 동천은 '산천으로 둘러싸여 경치 좋은 곳'이란 뜻을 담고 있다. 도롱뇽이 살 정도로 깨끗한 물이 흐르던 이 계곡의 가치를 일찌감치 간파한 옛사람들의 작명 솜씨다.

땅위로 드러난 나무들의 힘줄을 피해 걷는다. 백사의 별서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터가 나온다. 널찍한 자리에 연못과 우물 자리가 뚜렷하고, 한 쪽에 육각형의 정자가 있던 초석이 마치 땅을 뚫고 올라온 나무처럼 서 있다. 세상의 풍경이 보이지 않는 숲 속 정자의 주인이 백사였든 아니든 상관없겠다 생각이 든다. 누가 되었던 이 공간에서 번잡한 시정의 근심과 당쟁의 혼란을 잊고 쉬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계곡을 내려온다. 묘하게도 작은 사찰을 지나자 골목이 나오더니, 속세가 시작된다. 꿈 같은 길이 아닐 수 없다. 관직에서 물러난 백사는 망우리에 자신의 호를 딴 동강정사(東岡精舍)를 짓고 동강노인(東岡老人)이라 자칭하며 지내다 유배지 북청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골목 뒤로 사라진 계곡을 바라보다, 어쩌면 백사의 닢이 기쁨은 저 계곡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다.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1 판석을 켜켜이 깔아 놓은 것 같은 계곡은 '물길'이기도 하지만 바람이 흐르는 '바람의 길'이기도 하다. 2 저 좁은 돌 틈에 어찌 자리를 잡았을고, 척박한 처지에서도 꽃을 피운 한 떨기 야생화가 백사실계곡의 강한 생명력을 대변하는 듯하다. 3 육각형의 정자가 있었던 자리에 초석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비록 흔적만 남았지만 주변 경관은 물론이고, 잘 조성된 연못과 우물 등이 이 별사가 제대로 지어진 건축물이었음을 알려준다.



모노컬렉션 장응복 그녀의 그릇장 앞에 서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에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소임이라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녀를 만나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텍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모노컬렉션. 우리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 요란스럽지 않되 그만의 조용한 어조로 담담한 이야기를 하는 장응복을 만나러 작업실로 떠났다. 서울에서 10분도 채 되지 않은 거리임에도 푸른 나무 잎사귀 사이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가 서울을 벗어났음을 느끼게 해 주는 과천의 한 건물. 일 층엔 쇼룸이, 이 층엔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과 작업 공간이, 높은 천장 아래 다양한 원단과 움직이는 파티션으로 그어 놓은 '무계획의 계획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과연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공간 속에 기(氣)의 에너지가 자유로이 살아 숨쉬며 생활의 여유를 부여하는 친밀하고 감각적인 환경을 창조한다.' 라는 모노컬렉션의 철학 속에서 그녀는 살고 있었다.

자연광이 따뜻하게 비치는 큰 창과 책과 그림, 공간 곳곳에 자연스럽게 비치된 그녀의 물건 위치마저도 그녀의 감성을 말해 주는 듯했다.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해요. 책, 박물관, 미술관, 여행을 통해 공부하고 느끼고 다시 연구하죠." 실제 그녀는 브랜드 정체성을 고민하며 겪게 된 과정에서 수많은 책을 보았고, 이미지를 연구했고, 실험했다. 그 결과는 운명처럼 한국적인 미감으로 이어졌다. 세월이 흐른 지금, 인터뷰 내내 어떤 사명감보다도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해진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다. 남아있는 옛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도록 재발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그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라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디자인한 장도 그 뜻을 같이한다.

"2000년 인팍으로 우리의 옛 물건들을 모았어요. 한국적인 것을 곁에 두고 더 알고 싶어요. 여러 시대 중에서도 조선의 미감에 매료됐죠. 불균형의 절제미라고 할까요. 그 중 관복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부하고 살펴보면 장의 매력에 빠졌지요. 빛과 질감에 따라 달라지는 이미지가 제공하는 감성은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요. 차를 마시고 다기를 넣고 빼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장 자체가 주는 감성 그대로를 느끼게 되죠."

그 안에 넣는 그릇 역시 마찬가지다. 장 안에 켜켜이 쌓여 있던 그릇도 그녀의 감성을 담은 것들이다. 자연스러운 나무의 질감과 손때가 어우러진 다기들과 다완, 하얗고 고운 그릇들이 가득했다. 그중 형제처럼 닮은 듯 다르게 보이는 조선 시대 다완 3점을 꺼내 보여 줬다. "제가 아끼는 다완이에요. 불에서 자연스럽게 일그러져 따로 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현대 작가 작품 중에서는 이강효 작가의 작품을 좋아해요. 현대 작가지만 다완을 재현한 그의 착한 마음씨가 좋아요. 장시간 노동의 가치를 아는 듯한 그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일까. 그녀의 작업실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부드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통해 그녀가 고민해 온 우리의 미감에 대한 노력은 작은 쿠션, 천, 장 하나 하나에 담뿍 담겨 있다.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한옥의 매력은 소통이 아닐까요. 기분 좋은 불편함이죠. 살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공간을 나만의 느낌으로 완성하는 긴 시간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박재형



1 그녀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그릇들. 2 조선 시대 관복장에서 영감을 받아 그녀의 텍스타일을 빌려 수작업으로 제작된 지장으로 옷장, 책장, 다기장으로 쓰임새를 달리 쓴다. 3 조선의 미감이 느껴지는 이강효의 작품.



오직 한 장소에서만 연주 가능한 세계 문화유산, 종묘제례악

500년 동안 유지된 한 왕조의 역대 임금과 왕비를 기리는 진혼곡이 남아 있는 사례는 이 나라가 유일하다. 게다가 음악이 온전히 보존되어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왕실의 주도로 음악이 전승되고, 관청에서 특별 관리를 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적어도 이런 전통과 함께 '음악적 실체'를 유지해 온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1



2

1 종묘제례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들의 공덕을 기리는 진혼식이다. 왕조가 사라진 지금까지도 이런 전통이 시연될 수 있는 건 철저한 기록을 중시한 조선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2 소박하지만 법잡하기 힘든 우아함으로 빛나는 종묘란 공간은 제례악의 품격을 돋보이게 만드는 유일하고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3 춤과 음악이 동시에 연주되는 독특한 형식의 종묘제례악. 4 제례 절차는 선행절차(先行節次), 취위(就位), 영신(迎神), 행농나례(行農禱禮), 진찬(進饌), 초헌(初獻),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飲福禮), 첩번두(撤飯豆), 망료(望燎),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보다 외국에서 그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묘라는 공간과 제례라는 형식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대선주자들의 출사표는 현충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이러한 전통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다. 임금은 즉위식을 거행한 직후에 종묘사직에 나가 용상에 오른 사실을 고했다. 종묘와 사직은 조선의 통치 이념과 철학을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1392년 역성혁명으로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건국 3년 뒤에 경복궁 동쪽에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을 설치했다. 종묘는 왕실의 조상을 배향하는 사당이고, 사직은 두 단(사단과 직단)으로 조성해 땅의 신(土地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조상을 숭상하고, 농자천하지 대본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종묘는 봉어한 임금들의 신위를 모신 왕실 사당이었던 셈이다.

이야기가 엇나가지만 종묘 얘기가 나왔으니, 종묘의 건축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궁궐은 중국처럼 고압적이지 않고 일본의 그것처럼 장식적이지도 않다. 유교적 절제미와 엄격함을 건축에 실현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종묘는 이런 조선의 궁궐들과도 차별되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장식적 절제미를 배제한 극도의 '절제미'이다.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니 단청으로 멋을 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중하면서도 소박한 종묘의 건축미는 말로 설명하기 벅할 정도다. 단언하건대 '비오는 날 종묘의 풍경'은 그것 자체로 예술품이자 문화 상품이라고 할 만하다.

종묘는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정전은 조선의 연 태조와 4대조까지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었다. 4대가 넘어가면 정전 서편에 있는 영녕전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공적이 뛰어난 임금들은 4대가 넘어도 계속 정전에 모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정전 규모가 점점 커졌다. 현재 정전은 19실에 49위가 모셔져 있고, 영녕전은 16실에 34위가 봉안되어 있다.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서 행해졌던 제사 의식이 종묘제례인데, 나라의 제사이니 대제(大祭)라고 하였다. 처음에 종묘제례는 사계절의 첫 달과 12월에 날을 잡아 1년에 5차례 지내다가 횟수가 줄었고, 지금은 5월 첫째 일요일에 한 번 치러진다. 엄숙한 유교 의식에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곁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임금의 영혼들이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돕는다고 믿었기에 제례를 축제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왕실 제례에서 연주된 음악과 춤이 각각 종묘제례악과 제례무이다.

그러면 종묘제례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종묘제례악은 조선 역대 군왕의 신위(神位)를 모신 종묘와 영녕전의 제향(祭享)에 사용된 음악이다. 우리는 민족을 대표하는 음악이 판소리이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알고 있다. 하지만 판소리에 앞서 종묘제례악이 먼저 세계 문화유산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 전통 음악을 굳이 상하 개념으로 구분하면, 맨 윗자리는 종묘제례악이 차지하고, 말석에는 판소리가 있으니, 어찌 보면 지정 순서가 자연스럽도 하다.



3



4

1 세종대왕에 의해 중국의 음악 대신 우리의 음악으로 구성된 종묘제례악은 한국음악의 고유한 특성이 구현됐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에 쓰이는 악기로는 아악기(雅樂器)인 편종·편경·축(祝) 등이 있고, 당악기(唐樂器)로는 방형(方響)·장고·아쟁·당피리 따위가 쓰이며, 한국 고유의 횡취악기(橫吹樂器)인 대금 등이 있어, 매우 다채롭고 화려한 구색을 갖췄다. 2,3 조선 시대의 종묘제례악은 왕이 친림(親臨)하는 대사(大神)로 사직(社稷)과 함께 길례(吉禮)였다. 제사는 사가(私家)와 마찬가지로 밤중에 지냈으며, 임금을 비롯한 왕세자, 여러 제관, 문무백관, 무·아악사(舞雅樂士) 등 7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종묘가 조성된 것은 1395년(태조 4)이다. 이때의 종묘제례악에는 당악·향악·아악 등을 고루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425년 세종이 친히 종묘에 제향하고 궁으로 돌아가 이조 판서에게 “종묘대제에서 당악(唐樂, 중국 음악)을 쓰고, 뒤늦게 종헌(終獻)에서야 향악(鄕樂, 우리 음악)을 연주하니, 이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앞으로는 조고 신령(祖考神靈)께서 생시에 자주 들었던 향악을 연주하는 것이 어떠할지 맹사성(孟思誠)과 의논하라.”고 하명했다. 왕산악, 우륵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린 박연과 사대주의에 물든 조정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이 격려 아래 1435년 향악인 <보태평(保太平) 11곡(曲)과 <정대업(定大業) 15곡이 완성되었다. <보태평>은 역대 임금들의 문덕(文德)을 기리는 내용이고, <정대업>은 그들의 무공(武功)을 칭송하는 노래이다.

이러한 기록은 종묘제례악의 뿌리가 중국이 아닌 신라, 고려로 이어져 온 고유의 음악적 전통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음악 분야에서도 자주성을 강조하였던 세종의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음악이 종묘대제에서 본격적으로 연주된 것은 1463(세조 9)년의 일이다. 세조가 “정대업과 보태평은 그 성용(聲容)이 성대한데도 종묘에서 쓰지 않음이 가석(可惜)타.”라고 탄식하며 최항에게 악보를 고치게 하여 제례악으로 채택하였다.

종묘제례악은 그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진혼곡(requiem)이라고 할 수 있다. 춤을 곁들여 연주된 이 독특한 양식의 진혼곡이 5세기를 내려오면서 숙성시켜 온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구상에 단 한 곳만 존재하는 종묘라는 공간에서 연주될 때 비로소 정품이 되는 장소성과 지금도 연주되고 있는 ‘현재의 음악’이라는 생명성에 있다. 그뿐이 아니다. 조선 시대의 국립국악원 격인 장악원(掌樂院)에서 종묘제례악의 연주와 절차를 관장했다는 사실 역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성종의 명으로 제작된 일종의 음악 사전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는 종묘제례악의 음악적 이론과 연주 절차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왕실의 주도로 음악이 전승되고, 관청에서 특별 관리를 한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적어도 이런 전통과 함께 ‘음악적 실체’를 유지해 온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음악의 나라 조선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을 느껴 보려고 지난 5월 종묘제례악 연주를 참관하였으나 기대 밖이었다. 사람들에게 치여 장중한 진혼곡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에게 종묘제례악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음악을 향유할 수 없는 음악회는 무의미하다. 연희로서의 현장성도 중요하지만 음악의 가치를 음미하며 품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음악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전통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누가 봐도 낙제점이다. 이런 태도는 조선의 역사를 박제화하고, 현대사에서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짧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 후보들은 현충원에 앞서 종묘 참배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S

에디터 최태원(프리랜서) 사진 이종근



<국악기행>에 소개된 음원을 감상해 보세요

매호 소개되는 <국악기행> 칼럼의 국악을 직접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설화수 홈페이지의 설화수 매거진 e북을 방문하시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500백 년간 유지된 한 왕조의 역대 임금과 왕비를 기리는 진혼곡이 경건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피고 지고, 다시 피는 생명력, 야생초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야생초 그리고 계절의 아름다운 순환. 오랜 세월
 덤덤히 온몸으로 보여주던 자연이 선사하는 삶의 지혜.

하얀 눈이 덮인 길을 걷고 있노라면 푸르른 녹음이 드리워진 여름이
 그림고, 뜨거운 태양 아래 있노라면 선선한 가을이 그림다. 어느 계절
 을 좋아하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열에 아홉은 봄이나 가을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네 자연은 겨울이든 여름이든 차별 없이 늘 온몸
 으로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이며 감사한 삶의 모범을 보인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 또한 모를 리 없건만 우리의 마음은
 왜 늘 계절보다 앞서 터디 오는 시간들을 재촉할까. 여기, 우리가 거
 니는 거리, 이름 모를 누군가의 정원, 늘 마주하는 식탁 위의 식물들
 을 세밀화로 만나 보자.

“.....고운 몸은 아직도 송화 향기 띠고 있네/희고 짜게 볶아 내니 빛
 과 맛도 아름다워/떡자마자 이빨이 시원한 것 깨닫겠네/말려서 다래
 끼에 담갔다/가을 되면 노구술에 푹푹 찌서 맛보리다.” 김시습이
 지은 송이버섯에 관한 시의 한 구절이다. 송이버섯은 예로부터 향긋
 한 냄새와 씹는 느낌이 좋아 즐겨 먹었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우
 리나라 도처의 명산물로 송이를 들고 있고, <동의보감>에서는 “송이
 는 맛이 매우 향미하고, 송기(松氣)가 있다. 산중 고송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송기를 빌려서 생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무에서 나
 는 버섯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이다.”라고 송이의 우수성을 논하고 있
 다. 송이버섯은 지면에서 1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소나무의 뿌리에서
 자생하는데 우리나라 동쪽 지대, 태백산맥·소백산맥에 이르는 적송
 숲에서 주로 자란다. 비타민 D와 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저
 칼로리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여 성인병에 효험이 있다. 채취 기
 간이 짧고 기후에 민감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송이버
 섯은 것이 피지 않아 갓 둘레가 자루보다 약간 굵고 은백이 선명한 것
 이 좋다. 또한 것이 두껍고 단단하며 향이 진하고 자루가 짧은 것이
 상품이다. 송이는 흐르는 물에 얼른 씻어 건져야 하며, 껍질을 벗겨

놓으면 향기가 없어진다. 생식, 구이, 찜을 하거나 차 또는 술을 담가
 먹기도 한다.

한자어로는 서여(薯蕷) 또는 산약(山藥)이라고 하는 마는 <삼국유사>
 에 백제 무왕의 아명이 서동(薯童)이었으며, 마를 캐어 팔아서 생활하
 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 시대부터 식용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산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하였으나 근래에는 주로 재
 배를 한다. 마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만난이라는 당질이 함유되어 있
 으며, 각종 무기 성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또 아밀라아제 등
 효소도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는 강장식품으로 이용된다. 한방에
 서는 신체 허약·폐결핵·야뇨증·당뇨병 치료에도 사용된다. 조림
 이나 각종 음식의 부재료로 쓰이며,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한다.
 굵기가 균일하고 도톰하며 무거운 것이 좋다. 마를 갈 때 갈색으로 변
 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갈변 현상은 껍질을 벗긴 다음 식초에 담금
 으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예쁜 꽃이 피는 으름은 가을에 열매가 익으면 껍질이 벌어지며 뽕안
 과육이 보인다. 약 5미터까지 덩굴을 뻗는데, 중국에서는 단단한 덩
 굴 줄기 안쪽에 가는 구멍이 대롱 모양으로 통해 있다고 해 목통(木
 通)이라고 한다. 열매가 익어서 벌어진 모양이 여성의 음부와 같다고
 해서 임하부인(林下婦人)이란 별칭도 있다. 한방에서는 낙엽이 지는
 11월경에 단단한 줄기를 잘라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린 것을 약으로 쓰
 는데 소염·이뇨·진통에 효과가 있다. 신장염·방광염에 걸렸을 때
 하루에 10~20그램을 달여서 마시면 혈뇨나 부종을 줄일 수 있으며
 생리불순·생리통에도 좋다. 관상용으로도 심으며, 열매는 약간 단
 맛이 난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종근 세밀화 그림 송훈 도움 주신 곳 아모레퍼시픽 미술관(031-283-0309)
 참고 문헌 <약용식물대사전>(대나카 고지, 동학사)



松蕈

송이버섯(송심)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여 주며 성인병에 효험이 있다.



薯蕷

마 (서여)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각종
 무기 성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木通

으름 (목통)
 관상용으로도 심으며 사포닌과
 칼륨이 들어 있다.

벗과 함께하는 마음의 공간, 겨울 찾자리

깊은 숨을 쉬듯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차 한 잔과 정을 나눌
벗이 함께한다면 그 어디든 따뜻한 찾자리가 될 것이다.



찾자리란 차를 달여 마시는 곳, 차를 마시는 모임을 뜻한다. 그 자리를 명석(茗席) 혹은 다연(茶筵)이라 했으며 차 마시는 공간은 다현(茶軒), 다당(茶堂), 다옥(茶屋) 등으로 불렸다. 우리의 찾 자리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일본과 달랐다. 차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거나 했던 문화 공간 특유의 자유로움과 감성이 있었다. 때로는 대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고, 휘영청 밝은 달밤의 정원이기도 했다. 눈 내리는 들판이나 너럭바위에서도 차를 끓여 마시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손님을 대접했으며 가족 간의 화합을 이끌었던 찾자리. 허나 그 찾자리의 주인공인 차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겐 계절에 상관없이 여유로움을 베풀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만큼은 까다롭다. 연평균 기온 섭씨 12~18도, 강수량 1800밀리미터 이상, 찻잎의 색깔과 맛을 결정하는 엽록소와 아미노산을 위한 적절한 습도와 이슬, 땅은 풍화가 잘되고 자갈이 많아 통풍이 원활하며 유기질과 각종 광물질이 풍부할 것.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이 있으니, 바로 사시사철 초록빛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도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색으로 변해 가는 게 자연이지만 제주 설록다원은 여느 차 재배지보다 위도가 낮아 사철 푸르고, 항상 맑은 물과 햇빛이 가득하다. 이런 천혜의 자연을 품은 제주의 삼나무 통에서 숙성한 발효차 삼다연은 부드러운 풍미와 맑은 빛깔이 눈과 입을 즐겁게 해 준다. 삼다연은 고온의 배양기에서 일주일간 발효한 후 은근한 불에 건조시키고, 제주의 대표 나무라 할 수 있는 삼나무 통에 차를 넣어 다시 한 번 숙성시킨다. 그래서인지 삼다연은 첫 번째 우린 물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지녔으며 맑은 빛깔이 눈을 즐겁게 한다.

더불어 제주의 스페셜 티만 골라 담은 <시즌 오브 제주 (Season of Jeju)>는 제주 대표 원물을 잘 자란 차와 블렌딩해 제주의 계절별 아름다움과 향기를 담은 특별한 차다. 그중 제주 스위트 브라운은 제주 대삼나무 통에서 숙성한 후 발효차 삼다연에 카카오와 달콤한 캐러멜 향을 섞어 요즘같이 차가운 날씨에 달콤하고 따뜻한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차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보자. 그리고 해가 가기 전에 못 다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벗을 초대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차의 향, 이 모든 게 어우러진 따스하고 향기로운 밤이 될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임대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음 주인 곳 반김(02-730-6958),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행복한 비누질 (02-730-6928) 참고 문헌 <찾자리, 디자인하다> (이연자, 오픈하우스)



위 삼다연에 카카오와 달콤한 캐러멜 향을 첨가한 오설록 제주 스위트 브라운. 자연스러운 맛이 느껴지는 다관 세트는 허상욱 작품으로 정소영의 식기장. 차 도구는 양병용 작품으로 반김. 도톰한 누빔 지리는 정혜경 작품으로 행복한 비누질. 왼쪽 제주 삼나무 통 숙성을 통해 맛과 향에 깊이를 더한 발효차인 오설록 삼다연. 석류문 다기 세트는 이희진 작품. 물푸레나무로 만든 찻상은 양병용 작품으로 모두 반김.

자연의 기운이 깃들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푸른 잎처럼 자연이 선사하는 촉촉함으로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다.



건강한 자신감이 깃들다

씨늘한 기운이 감도는 아침저녁과 달리 눈부시게 따사로운 햇빛과 살며시 불을 간질이는 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 그윽한 한방 허브의 향이 기분 좋게 와 닿는 설화수 스파에서 원영희 독자를 만났다. 두 딸과 함께 쇼핑을 마치고 방문한 그녀는 맑은 피부에 생기가 넘쳤다. 이내 둘째 딸 영화 씨의 자랑스러운 증언이 이어졌다. “한참을 걸으면 힘들어하실 법도 한데 워낙 건강해 좀처럼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셋이 함께 쇼핑도 운동도 즐겨 하죠.” 타고난 피부와 운동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초창기부터 꾸준히 애용해 온 설화수 덕분이라고. “피부가 건조한 타입이라 한겨울에는 진설크림 위에 자음생크림을 덧바르기도 해요. 그럼 칼바람에도 끄떡없죠.” 전문 테라피스트의 문진을 통해 차가운 기운과 건조한 바람으로 인한 피부 건조 증상을 다스려 줄 ‘고영양 트리트먼트’를 추천받은 원영희 씨.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침향기가 감돌고, 여기에 꼭 맞는 테라피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트리트먼트 룸에서 조선 시대 왕실에서 행해졌던 향 건포 마찰을 통해 오감을 깨우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집중 공급해 균형을 잡는 페이스 집중 트리트먼트인 고영양 트리트먼트는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안팎을 다스려 본연의 피부 탄력을 되찾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인삼 뿌리부터 진생베리까지 하늘과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아낸 자음생크림을 주축으로 한 본 프로그램은 주성분인 곤농축 인삼 결정체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 방어력을 높여준다. 설화수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설화수 스파에서의 체험을 마친 그녀는 피부 깊숙이 스며드는 촉촉함과 전문 테라피스트의 시원한 손길에 개운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으며 설화수와 유익한 만남을 마무리했다.

자연이 깃들다

자연과 인간의 상생, 전통과 현대 과학의 상생으로 빚어낸 한방 성분을 기조로 하는 설화수. 단순히 한방 성분에 그치지 않고 피부에 우수한 효과와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 피부과학을 접목시켰다. 설화수는 자연의 이치에서 얻은 조화와 균형을 통한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끌어내기 위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귀한 약재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한방 원료의 수급을 위해 약초원을 운영해 약재의 종자, 멸종 위기에 놓인 약재의 보호 및 재배 환경을 연구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를 피부에 선물하고 다시 그 자연에 보답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상생의 지혜인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종근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4층에 위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문의 02-411-0262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으로 심신에 맑은 기운을 충전한 원영희 씨





삶의 희망과 꿈을 노래하다,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유쾌하고 따뜻한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와의 만남.

어느새 시간은 흘러 2012년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 봄날의 눈부신 꽃들도, 한여름의 뜨거웠던 태양도 사라지고 겨울을 겨울답게 보내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봄은 또 오리라.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돌고 돌아 흘러간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인생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듯이 문학도 마찬가지다. 여고 시절 가슴을 뛰게 했던 고전들은 현대에 맞게 또 다른 모습으로 변주한다. 음악과 영화, 뮤지컬이라는 모습으로 말이다. 모습은 변했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월이 가도 그대로다. 사람을, 사랑을, 꿈을 이야기한다. 가을 바람이 시원한 어느 날 샤롯데씨어터에서 독자 진정현 씨를 만났다. 시어머니의 추천으로 사용하게 된 설화수와의 인연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나온 그녀의 눈빛에서 특별한 가족 사랑이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 볼 공연은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뮤지컬 <맨오브라만차>는 17세기에 쓰인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다. 소설 <돈키호테>는 옛 권위에 매

달리는 사회와 사람들을 풍자한 소설로, 400년 넘게 사랑받았으며, 극작가이자 방송작가였던 데일 와셔맨(Dale Wasserman)에 의해 뮤지컬로 재구성되었다. 세르반테스를 화자로 삼아,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자신이 쓴 소설 <돈키호테>를 들려주는 극중극 형식을 채용한 뮤지컬 <맨오브라만차>는 1965년 뉴욕에서 초연된 이후, 반세기 가까이 공연되고 있으며, 국내에선 2005년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어 관객과 평단 모두로부터 최고의 무대라는 극찬을 받았다. 2012년 뮤지컬 <맨오브라만차>에는 황정민, 서범석, 홍광호 등 새롭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캐스팅으로 진행된다. 특히 1995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황정민의 연기를 무대에서 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만차에 사는 시골 양반 알론조는 중세 기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망상에 빠져 스스로 돈키호테라 칭하며 시종인 산초와 모험을 찾아 떠난다는 내용의 <맨오브라만차>. 풍차를 괴수 거인이라며 달려들지 않나, 여관을 성이라 믿고 찾아 들어가 하녀인 알돈자에게 아름다운 여인이라 부르며 무릎을 꿇지 않나, 면도 대야를 황금 투구라고 우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목받는 것은 우스꽝스러움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 때문이다. 진흙탕 같은 천한 삶을 사는 알돈자에게 스페인어로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의미의 '돌시네야'라고 부르는 그의 한결같은 사랑,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상처를 감싸고 안아 주던 그의 진심은 뮤지컬을 보는 내내 가슴 한 편에 켜켜이 쌓여 공연이 끝난 뒤에도 진한 여운으로 남았다.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로 시작하는 희망으로 가득 찬 노랫말과 아름다운 멜로디의 <이룰 수 없는 꿈>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는 여주인공 알돈자의 비난 섞인 질문에 답하는 돈키호테의 노래다. 뮤지컬 무대를 넘어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 엘비스 프레슬리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에 의해 불리기도 했던 이 노래는 결국 400년 전 세르반테스가 현재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꿈보다는 현실을, 정의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용기의 날을 세우고 세상에 도전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데일 와셔맨은 뮤지컬 <맨오브라만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은 그 자신이 돈키호테였던 세르반테스의 불굴의 영혼에 존경을 표하는 나의 방식이다". 화려한 볼거리와 기술로 채워지던 공연들 틈바구니에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전해 준 <맨오브라만차>. 수많은 관객의 가슴속에 희망이라는 꿈을 심어 주었던 뮤지컬 <맨오브라만차>의 감동은 계속될 것이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오디뮤지컬 (1588-5212)



1 겨울 속 기사들과의 결투는 결국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었다. 2,5 공연장인 샤롯데씨어터. 3 환한 미소의 진정현 씨. 4 따뜻한 미음과 호방한 기운을 지닌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5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19세기 후반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화려하고 모던한 무대와 탄탄한 스토리, 아름다운 음악으로 낭만적인 겨울밤을 수놓을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가 찾아온다. 에디터 문비송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는 황태자와 그의 연인 마리 베체라의 비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과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아들이었던 루돌프의 이야기다. 유럽의 정치적 격변기에 태어나 왕실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보수적인 아버지 프란츠 요제프 황제라는 견고한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그 사이 시작된 마리 베체라와의 위험한 사랑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며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2006년, 브로드웨이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뮤지컬로 제작하여 헝가리에서 초연되었고 이후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 흥행 성공을 거두었다. 2012년 한국 공연을 위해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 원작자 잭 머피, 연출가 로버트 요한슨이 호흡을 맞추어 몇 번의 대본 수정을 거쳤다. 여기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무대의상과 세트들이 명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더해 줄 것이다. 황태자와 마리 베체라가 처음 만나는 '궁정 극장'에는 클림트의 작품인 부르크 극장(궁정 극장)의 계단 실 천장화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원조 한류 스타 안재욱과 뮤지컬 배우 임태경, 박은태가 황태자 루돌프 역으로, 황태자의 마지막 사랑인 마리 베체라 역에는 옥주현, 최유하, 김보경이 출연한다.

일시 2012년 11월 10일 ~ 2013년 1월 27일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문의 02-6391-6333 관람료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괴테가 쓴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2000년 초연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 온 뮤지컬이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친구인 캐슈트너의 약혼녀 사를로테 부프에 대한 괴테 자신의 실연과,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예루질렘이 유부녀에게 실연당해 자살한 사건을 소재로 쓴 작품이다. 뛰어난 구성, 인간 심리의 완벽한 해부, 아름다운 자연의 묘사 등 빼어난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근대 이후 독일 소설의 한 원형으로 꼽힌다. 실내악 중심이었던 음악을 전면적으로 손봐 강렬하고 비트가 있는 14인조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 대극장에 걸맞은 극적인 음악으로 탈바꿈시켰기에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일시 10월 25일 ~ 12월 16일 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문의 02-749-9037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뮤지컬 <영웅>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러시아, 만주 일대를 오가며 독립 운동을 펼치고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까지의 삶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이다. 난세에 조국을 위해 어떠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온 세상에 일본의 만행을 알렸던 용감한 애국지사인 동시에, 함께했던 동지들의 죽음에 아파하고 고뇌하는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그려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더불어 안중근 의사의 의거 행위를 통해 진정한 애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찰하게 하는 뮤지컬이다.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현실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지도력과 애국의 덕목을 보여 줄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 반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뮤지컬 <영웅>의 열풍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 11월 18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차홀 문의 1544-1555 관람료 영웅석 5만원 / 독립군석 3만원



2012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한국에서 사랑받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 <Lake Misty Blue>, <REFINEMENT> 등 16장의 연주 앨범을 낸 유키 구라모토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니스트 자용, 지휘자 아드리엘 김과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곡들을 엄선하여 들려 준다. 자용이 협연하는 거센의 <랩소디 인 블루>, 용재가 고른 크리스마스 스페셜, 유키 구라모토의 베스트 메들리는 특별한 날 당장 뜰어 보고 싶은 선물 중의 선물을 예고하고 있다.

일시 12월 25일 오후 7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B석 3만원

랑랑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랑랑이 피아노 협주곡으로 한국 관객을 찾는다. 랑랑은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을 비롯해 미국의 5대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모두 협연한 최초의 중국인 피아니스트이다. 더불어 최근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거센 메달 시상식'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가족, 상원의원들, 허비 행



곡,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등과 함께 <Hey Jude>를 불러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관심이 쏠렸다. 건반 위에서 보여 주는 기술과 감성, 천부적인 음악성을 지닌 랑랑의 협연은 독주 못지않은 화려함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일시 11월 28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41-6236 관람료 R석 16만원 / S석 12만원 / A석 9만원 / B석 6만원

마린스키 발레 & 오케스트라 <백조의 호수>



세계 정상의 마린스키 발레단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가 <백조의 호수> 공연을 선보인다. 완벽한 테크닉과 표현력에 최상의 연주가 더해질 이번 내한 공연에는 2011년 마린스키 발레단에 동양인 최초로 입단, 두 달만에 <해적> <돈키호테>의 주역을 맡아 뜨거운 찬사를 받은 한국인 발레리노 김기민이 주역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마린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화려한 의상, 무대 디자인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완벽한 음악에 아름답고 과감한 표현력으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11월 11~13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1577-5266 관람료 VIP석 27만원 / R석 22만원 / S석 17만원 / A석 12만원 / B석 5만원

<반 고흐 in 파리> 전



1853년 네덜란드의 준데르트에서 태어나 1890년 37세에 파리 근교의 사골 오베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반 고흐. 그는 예술에 모든 것을 바친 불운한 천재다. 반 고흐 예술을 학술적, 교육적 시각으로 심도 있게 조명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고흐가 작품 활동을 한 10년 동안 예술적 토대를 쌓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파리 시기(1886 ~ 1888)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유화 6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전시는 파리 시기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동시대 미술 속으로 뛰어들어 단숨에 자신만의 양식을 만들어 낸 그의 예술적 재능에 대한 발견과 더불어 천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시 2012년 11월 8일 ~ 2013년 3월 24일 장소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문의 02-724-2900 관람료 일반 1만 5,000원 / 중고등학생 1만원 / 초등학교생 8,000원 / 48개월 이상~미취학 아동 6,000원

노라 존스 내한 공연

장르를 넘나드는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싱어송 라이터, 그래미의 여왕, 노라 존스(Norah Jones)가 내한 공연을 갖는다.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편안한 창법으로 완성도 높은 앨범을 선보이며 해성처럼 등장한 노



라 존스는 2002년 데뷔 앨범 <Come Away With Me>로 제45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상'과 '올해의 앨범상'을 비롯한 5개 부문을 석권, 데뷔와 동시에 그래미의 여왕으로 떠올랐다. 데뷔 앨범에 포함되어 첫 싱글로 발매되었던 <Don't Know Why>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새 앨범 <Little Broken Heart>를 기념하는 투어로 이번 공연에서 대표곡 <Don't Know Why>, <New York City>는 물론 새 앨범 수록곡 <Good Morning>, <Happy Pills>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계 400여 회의 투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라 존스가 자신의 변화를 어떤 극적인 형태와 노력함 통해 보여 줄지 기대된다.

일시 11월 17일 오후 7시 장소 잠실 실내체육관 문의 02-3141-3488 관람료 VP 16만 5,000원 / R석 13만 2,000원 / S석 11만원 / A석 9만 9,000원

세계를 향한 설화수의 아름다운 행보

홍콩과 뉴욕, 중국,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 태국으로 진출한 설화수의 미감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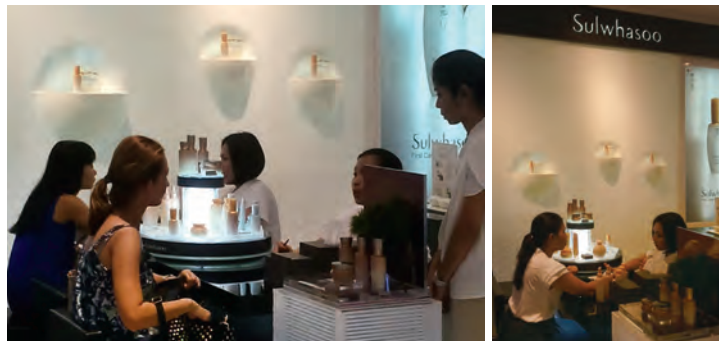
엄선된 한방 성분과 최첨단 기술, 전통 기법의 사용으로 여인들의 근원적 아름다움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온 설화수가 낮과 밤이 아름다운 관광의 나라 태국 그리고 서울의 면적을 능가하는 규모에 천 만 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 방콕으로 진출했다. 2004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2010년 글로벌 마켓의 최전선인 뉴욕 버그도프 굿맨, 2011년 중국, 2012년 9월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은 6번째 글로벌 매장 진출이다. 이는 설화수의 제품에 깃든 전통 미감과 제품의 우수성이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온 설화수의 마음이 공감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태국 수도 방콕의 센트럴 칫롬(Central Chidlom) 백화점에 1호 매장을 열고 10월 17일 개점 행사를 열었으며 개점 행사에는 센트럴 리테일사 니시니 지라티왓 부사장과 태국 유통 관계자, 현지 언론 등이 참여해 설화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설화수는 올해 안에 센트럴 라프라우에 추가로 입점, 내년까지 시암파라곤과 센트럴 핀클라우 등 태국 주요 상권과 백화점에 모두 5개 매장을, 2015년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도 매장을 열어 아세안 6개국 시장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보의 최전선에 있는 설화수의 인기는 '귀한 한방 원료를 사용하는 과학적인 한방 화장품'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식을 뛰어 넘어 우리 문화를 세계를 널리 알리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순수 국산 한방 성분에 대한 고집과 철학, 설화수가 추구하는 과학의 원리가 담긴 포제법을 통해 한방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설화수가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노력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녹아졌음을 말해준다. 세대와 나라를 아우르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설화수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S



맺고 푸는 선의 드라마, 매듭 공예

수많은 인연을 맺고 풀어내던 선조들의 마음을 시각화한 언어.



〈Sulwhasoo〉 독자 참여 코너 '전통공예 배우기' 매호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는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서 다양한 공예 기법으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재해석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전통공예 배우기'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독자엽서를 통해서 응모 가능합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낮익은 풍경을 뒤로하고 한옥의 처마선이 어깨를 맞대며 옛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촌, 북촌 한옥마을의 역사와 함께 서예, 다도, 그리고 규방 문화의 전통을 잇는 조각보, 매듭 공예 등을 배우는 문화 체험 공간인 북촌문화센터에서 이송이 씨를 만났다. 단아한 외모의 그녀는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티에, 우리네 전통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이 없던 터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런 그녀와 함께 배워 보기로 한 공예 프로그램은 매듭 공예.

명주실 한 줄로 시작해 엮고, 짜고, 겹치고, 꼬아 만드는 전통 매듭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우리 고유의 기술이자 선조들의 미적 감각이 담긴 정취라 할 수 있다. 노리개 같은 장신구에서부터 의복의 단추와 주머니, 부채 끝 선추 등 작은 부분 하나에도 여유로운 멋을 표현하고자 한 우리 선조들의 감각의 도구이기도 한 전통 매듭의 형태와 그 의미를 산출하는 기호 체계는 코, 몸, 손의 세 가지 요소로 분절된다. '코'는 평매듭, 감기매듭, 국화매듭처럼 매듭코가 기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의미 작용은 옷고름의 코처럼 부드러움과 여유를 나타낸다. 그러나 '몸'은 매듭이 감겨진 부분으로서 가닥을 결합시키고 묶음으로써 매듭의 강함을 나타낸다. '손'은 매듭의 끝으로 술 같은 것. 옷고름으로 치면 옷고름 자락을 뜻한다. 이 세 가지 균형 속에서 매듭은 아름다운 구조를 갖게 되고, 인간이 만나 서로 인연을 맺기도 하고 원을 풀기도 하는 운동을 한다.



전통 매듭 공예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아무진 손끝으로 정성스레 매듭을 엮던 그녀.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된다던 그녀는 프랑스에 유학할 당시 전통 초콜릿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다 했다. 소중한 우리 문화의 명맥이 이어져 후일 우리네 전통 공예를 배우러 파란 눈, 까만 피부의 외국인들이 모여들 모습도 상상해 본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S 에디터 문비송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서울시 북촌문화센터(02-3709-8388, <http://bukchon.seoul.go.kr>)



page 24 | **Quality Life**

<Quality Life> is a column about tracing the steps of Korean ancestors to explore the lifestyles and aesthetics of the past beyond cultural heritages. This issue introduces the intellectuals who suggested new views in politics, art and culture, and who pioneered a new culture, especially the female intellectuals who were not discouraged by the social limitations set for women and who envisioned the leadership of women in the future.



page 34 | **The World's Design Hotel**

<The World's Design Hotel> introduces the world's design hotels that are glowing with unique personalities, from the hotels built by renowned designers to the design hotels of fashion brands. Hotels are no longer just for travelers' lodging ; they now offer rest beyond visual pleasure. This issue introduces Hotel New York, located at the Port of Rotterdam, the largest trading port in Europe. The hotel was named such as it was the place where the Dutch immigrants went aboard the ships to sail to New York.



page 40 | **Art Class**

<Art Class> is a column about exhibitions recommended by renowned art critics in Korea for art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This issue introduces <The Deoksugung Project>, an exhibition that exhibits special artworks created by contemporary Korean artists throughout Deoksugung Palace. Many artists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including Do Ho Seo, Soo Kyung Lee, contributing various installations, sound artworks, and activities where the audiences can participate.



page 47 |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This issue's <The Encount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troduces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e meaningful rendezvous of tradition and modernity held by Sulwhasoo as part of its persistent sponsorships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ists. Celebrating its sixth year,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bridges the collaboration between traditional craft masters and modern artists.

page 58 |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

<Sulwha Cultural Exhibition : Meet the Masters> is a column dedicated to today's masters who are succeeding in solidifying the traditions of Korea with unwavering passion and dignity. This issue introduces the artist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sixth event of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Sulwhasoo's beautiful attempt to safeguard Korean culture, so as to share Korea's beauty with others and to travel back to the origin of Korean traditions.



page 66 |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 Search of a Space for Rest> introduces tourist attractions that offer comfort and healing to modern people for peaceful mind. The trip in search of a rest in Korean traditional spaces that give consolation and remedy to the modern people : Where did the government officials relax after a long day of hard work and debates? At Baeksasil Valley in Buam-dong, Seoul - the 'secret garden' that answers our questions.



page 74 | **Trip of Korean Music**

<Trip of Korean Music> - the column in search of the origin of Korean music. The story of Korean music written amongst the landscapes of Korea in different seasons. The final chapter of the journey to the origin of traditional Korean music is Jongmyojeoryeak. The performance is reenacted twice a year on a magnificent scale to showcase its grandeur.



page 84 | **Sullocdawon(雪綠茶園)**

<Sullocdawon> is a column that spotlights the reemerging tea culture for the best tea-drinking experience. Samdayeon is a post-fermented tea that is matured in the cedar barrels of Jeju to add depth and value to its taste and flavor. We introduce JEJU Sweet Brown, which blends cacao and the sweet scent of caramel into Samdayeon for sweetness and warmth that you can enjoy in winter.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 여러분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독자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욱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2년 12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 당첨자 발표** 2013년 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윤조에센스 5명

설화수 윤조에센스는 촉촉함을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주는 한방 에센스입니다.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바르면 메마르기 쉬운 피부에 윤기를 주어 다음 단계의 흡수 및 효능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의 제품입니다.

문의 080-023-5454

9/10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김윤아 서울 노원구 상계2동

박옥수 경기 광명시 광명1동

신명봉 서울 송파구 송파동

신익서 강원 춘천시 지석로 29

이명혜 전주 완산구 효자동2가

★9/10월호 당첨자 선물은 11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